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별도의 구독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부산문화회관, 구·군 문화회관(해운대, 을숙도, 금정, 동래, 영도), 부산시민회관, 감만창의문화촌, 조선통신사역사관, 사상인디스테이션, 홍타이트센터, 도시철도 북 하우스, 또따또가 운영센터, 영화의전당, 부산 시립미술관, 영광도서관, 부산지역 관광안내소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무료 배포처 문의 : T. 051-745-7223 E-mail. aktw5555@bscf.or.kr





**표지 | 2016 ECO ART TRIP**

지속가능한 교통과 환경 문제를 예술의 언어로 함께 고민해보는 프로젝트

친환경 교통주간, 수정동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스마트폰 비콘기술을 접목  
지도앱을 이용하여 스토리 있는 참여형 아트콘텐츠 에코 여행

주최 · 주관 | 다원예술창작그룹 <프로젝트 GR>

기획 | 최동민 프로듀서

일시 | 2016. 9. 21(수)

장소 | 부산 동구 수정동 일대

2016 지역문화예술특성화 다원문화예술 분야 지원작품



오염된 지구를 거꾸로 달리는 자동차



거리의 주인은 자동차일까 사람일까,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오염된 지구의 모습



모바일앱 비콘 IT기술과 지역주민이 함께 만난 인터랙티브 퍼포먼스

# CONTENTS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 # 이는글

06 모더니즘에서 생활예술까지 그리고 문화적페의 착결 이성훈

## #1 부산문화재단에 바란다

14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시대를 열아라 정상도

## #2 말문을 엮다

20 영국 땅에 K-POP을 전파하고 돌아온 지랑스러운 부산의 아들 딸,  
밴드 세이수미 say sue me를 만나다 방호정

26 환경을 걷는 예술, 프로젝트 GR 최동민 대표 이연승

30 도시에서 자라고 있는 아파트들에게 홍순연

34 부산현대미술관 김성연 관장을 만나다 구본호

40 잔정 나도, 학습자도 즐거운가? 양근숙

## #3 문화 돌보기 I

46 산업유산의 문화공간화, 그 시대적 의미 김동진

50 잃어버린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공간, 문화공장 F1963 강재영

## #4 문화 돌보기 II

54 부산의 생활문화 정책현황과 과제 서영수

## #5 속살을 보다

68 이론과 실천의 조화-정봉석 「부산 연극의 미학」 황선열

72 지금도 여전히 민중미술 박은지

76 지금 여기서 옛 정취에 취하다 퍼포먼스 《Modern Times》 김문홍

80 와인에 재즈가 빠졌다고? 김상화

## #6 손을 잡다

84 꽃과 공룡, 2017 문화다양성주간 개막행사 현장 스케치 김유리

## #7 재단은 지금

88 부산문화재단은 지금



공감그리고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동권 24호 정기간행물(부산광역시 바 01159)

ISSN 2586-1077

등록일 2011. 6. 23 발행일 2017. 7. 21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Tel.051-744-7707 www.bscf.or.kr

편집위원 구본호, 김희진, 동갑산, 방호정, 이성훈, 정만정

편집기획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디자인·제작 MANBO DESIGN



부산문화재단 '공감 그리고', 25호

부산문화재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계간지 「공감 그리고」는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 제공형 문화예술 잡지'입니다.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은 모두 개인 필자의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 모더니즘에서 생활예술까지, 그리고 문화적폐의 척결

글 | 이성훈 · 본지 편집위원, 전 경성대 글로컬문화학부교수, 예술철학자

『공감 그리고』 25호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생활문화예술이다. 삶 속으로 구심력으로 움직이는 예술유형은, 삶에 대해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모더니즘과 달라도 많이 다르다. 그리고 이렇게 모더니즘에서 생활예술로 되돌아오는데 무려 일백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아니, 우리가 생활문화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도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삶에 대한 극단적 반대운동을 거쳐 왔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생활문화는 모더니즘의 경험과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만 그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은 지면관계상, 생활문화를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해보자. 생활문화란, 예술지상주의나 최소한 삶에 대한 일정한 거리두기로부터 창작의 이유와 동력을 끌어온 모더니즘과는 달리, 문화예술 활동의 의미와 동력을 오로지 삶 속에 두고자 하는 문화라고 말이다. 그러니까 세간의 오해와 달리 생활문화는 조기축구처럼 이른바 생활인들의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나는 부산문화재단이 앞으로 생활문화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활문화는 문화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하다. 덧붙이자면, 생활문화예술은 거대문화예술이라 할 모더니즘적 문화예술과는 다른 인프라를 요구한다. 거대규모의 오페라극장이나 아트센터 따위가 아니라 작은 문화사랑방이 기초행정 단위마다 들어서야지만 생활문화예술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생활문화예술이 꽃피게 될 문화사랑방은 공공제도이고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의 압력 아래에는 있어야 하나 상업시설이나 사적 문화제도와는 달리 시장의 압력으로부터는 벗어나야 하며 훨씬 더 넓은 이념과 정당화 원칙에 입각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문화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전제조건인 문화적폐와 이를 통해 사적 이익을 거두고 있는 일부세력의 척결문제이다. 왜 우리의 경우는, 자칭 보수세력의 수중에 정치권력이 들어가지만 하면, 그간 애써 가꿔온 모든 영역의 민주주의가 조롱거리와 타

도의 대상으로 문갑해버리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문화영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가안위라고 하는 허울 좋은 명분과, 어떤 세상이건 오직 자신의 입신양명만 도모하는 소수의 출세주의자의 타락한 열정이 가세해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유무형의 온갖 나쁜 짓이 백주대낮에 자행되고 권장되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런데 중앙은 중앙인 만큼 이런 적폐세력이 왕왕 적발되고 처벌에까지 이어지나 부산을 포함한 지역사회는 지역이라고 하는 지리적 위치가 지역토호세력을 위시한 적폐세력에게 마치 보호막과 같이 작용한다. 이런 사법의 칼날이 원래 무더서가 아니라 법의 집행자와 적폐세력이 한통속으로 지역사회 특유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다양한 기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그 세력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방자치의 수준을 형편없이 떨어뜨리고, 이에 지방자치라고 하는 정치제도에 대해 기대는커녕 혐오감을 키우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지 않았던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대선 기간 중의 공약을 거쳐 이제는 국가의 우선 과제로 선정된 의제 중에 바로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사항, 곧 생활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적폐세력의 척결도 포함되어서 일단 새 정부의 활약상에 기대와 함께 크게 성원을 보내는 바이다. 기우이길 바라지만,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천한다 한들, 거기에 문화분권을 통한 실질적인 문화민주주의와 중앙에 못지않게 길고도 끈질긴 지역사회의 적폐와 토호세력의 발본색원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지역사회로서는 그 지방분권주장이 공염불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리고 중앙의 일이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지역현안이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실천의 발걸음이 더디기만 하다면, 지역민은 인내심을 시험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수준을 넘어 급격히 비판의 총위로 올라설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만큼은 행복감과 안정심이 우리가 가끔 먹는 진귀한 음식이 아니라 일용하는 양식이어야 하지 않을까.





12 대청로135번길 14  
Daecheong-ro 135beon-gil

삼진라미박스

인쇄 우

이동형 퍼포먼스 <Modern Times>





2017  
감만창의문화촌  
오픈스튜디오  
05/26  
14:00-18:00

니 멋-대로 움직이는 학교

바름김자옥차용...  
사고체상상편집소피플  
Bang.  
깨어난오지필름침묵.  
김라오픈스튜디오라이브.  
최영은감만거류.

감만창의문화촌 오픈스튜디오





밴드 세이수미



#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시대를 열어가

글 | 정상도 · 국제신문 논설위원



'국민 누구나 창조성의 원천으로서 문화예술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의 나라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등과 함께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한 문화균형발전을 문화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정부가 펼칠 문화정책에서 '생활문화시대와 문화균형발전'에 유독 눈길이 간다. 그 이유는 부산문화재단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서다. 시민이 주체로서 생활문화를 만들고 향유하는 과정을 민주주의 과정으로 여기는 정부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부산문화재단의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은 문화균형발전을 위한 독립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부산문화재단으로선 새로운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역할과 기능을 둘러싼 문제 제기들을 곱씹어보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때라는 이야기다.

## ● 문화정책의 바탕과 현실

"예술이 다양한 사회의 문화적 주체성과 정신적 유산을 반영, 보존, 풍요롭게 하고 표현과 의사전달의 보편적 형식을 구성하며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차이에 대한 공통분모로서 모든 사람에게 인류 사회에서의 소속감을 절실히 느끼게 해 준다는 점을 인정하여, 회원국은 당연히 그리고 그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인류가 전반적으로 예술에 접근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1980년 10월 제2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총칙 1항이다. 문재인 정부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인이 문화자유권과 문화창작권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며 "많은 문화예술인이 수입이 일정치 않고 일거리가 없는 등 복지에 취약하다. 봉급 생활자처럼 실업급여를 주는 등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인 '블랙리스트'를 척결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향유 참여 창조의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새 정부이니 두고 볼 일이다.

"모든 지역의 문화가 고르게 발전해야 합니다. 나라 곳곳이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가진 문화의 고장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격차가 해소되어야 하고 문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를 생활 속에서 향유하는 사회가 되어야 진정한 지역문화가 꽃피고 문화 분권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을 진두지휘할 도종환 장관 취임사는 그 연장선에 있다.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문화균형지수 개발, 지역문화재생 사업 확대, 지역 문화진흥기금 확충과 함께 지역 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예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상이다. 아이 셋을 둔 한 40대 민간 오케스트라 단원은 버스요금이 아까워 왕복 40km를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연주가 없는 날 대리기사는 물론 음악학원과 방과후 학교 강사로 나섰다. 하지만 그는 지난 5월 삶의 무게에 짓눌려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지난해 11월





나온 '예술인 맞춤형 사회복지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예술인처럼 겸업 예술인 71.4%가 예술 활동으로 손에 쥐는 수입은 월 평균 47만 4000원에 그쳤다. 부산시가 2015년 11개 분야 문화예술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예술 활동으로 연간 버는 돈이 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72.8%에 달했다. 특히 예술인들이 우리 사회를 어두운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점이 아쉽다. 금정문화재단이 펴낸 2016 금정구 문화지표 조사 보고서엔 예술인 설문조사가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우리 사회는 예술을 존중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예비예술인 30%가 동의하지 않았고, 두 명 가운데 한 명꼴인 45%가 '우리 사회는 예술가로 살아가기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보다 더 생생한 사례는 따로 있다. 최근 한 대학교의 졸업연주회에 다녀온 지인이 들려준 이야기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비올라를 배운 지인의 조카가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독주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답답한 가슴을 주체할 수 없더라는 것이다. '졸업하면 뭐하지?' 늦은 저녁을 먹다 꼬집어낸 말 한마디에 그 좋던 분위기가 싸늘해졌기 때문이다. '연주자로 활동하고 싶어도 공간과 기회가 부족하니 당장은 전국 방방곡곡 오디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가야 할 판이지만 그마저도 흔치 않다'는 조카의 하소연을 전해주며 쓴웃음을 지었다. 아예 대학에서 퇴출당하는 무용학과 등 쪼그라드는 순수예술의 입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 ● 부산문화재단 기대와 우려

문재인 정부 출범에 전국의 문화재단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전국 17개 광역문화재단 연합체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는 지난 5월 제주에서 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에 선거 공약을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목소리로 문화재단 활동의 근간이 되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역문화진흥의 법적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격차 해소와 다양성 추구가 지역문화진흥법의 핵심 가치라면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를 꽃피우는 일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각 지역문화재단이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며 평가하는 주체가 된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있겠나 싶다. 이에 더해 문화재단의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풀어야 할 현안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부산문화재단이 부산 문화예술인에게, 부산 시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큰 틀에서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지원,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생활문화 관련 사업 추진 및 활동 지원, 문화예술교

육에 관한 사업 및 지원, 문화복지에 관한 사업 및 지원, 지역의 문화시설에 대한 시설 운용 및 관리,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 등 고유 역할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자면 부산시나 국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반대로 문화예술가 창작지원, 시민 교육 프로그램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반성할 일이다. 재단의 위탁업무가 90% 넘고 자체 예산으로 펼치는 사업 규모는 10억 원이 채 안 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자 극복해야 할 현실이다. 전국 문화재단 가운데 처음으로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만들었으니 예술인 복지 향상에도 그만큼 공을 들여야 한다. 공공 예술 프로젝트는 장소적 특징과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해당 프로젝트가 이뤄진 곳이 관광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이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가 부산만의 예술 상품 만들기다. 그 밑바탕은 부산 예술이 무엇인지, 부산만의 문화 상품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다. 바로 일상적인 부산문화재단의 역할이다. 그동안 전문성을 축적해왔고, 전문가 집단을 형성했으며 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는 당위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공동체가 일상적으로 문화를 즐기고 그 과정이 민주주의의 역량을 쌓은 과정이 되도록 재편하는 것이다. 핵심 키워드로 생활문화, 문화적 도시 재생, 문화적 협업을 꼽을 수 있다. 시민도 문화예술인도 행복한 부산을 위해 생활문화 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화적 도시 재생은 꾸준히 관심을 뒀던 분야인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적 협업에서 부산문화재단이 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부산시나 기초지자체와는 사회문화예술교육,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해 힘을 모아야 마땅하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업인과 공무원 문화예술교육이다. 기업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 메세나 활동을 유도하고, 공무원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예술 마인드를 가진 행정가를 육성하는 일이다. 그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될 문제가 있다. 직원들이 고압적 자세나 기계적인 응대 등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처신을 삼가는 일이다. 부산문화재단에 이 모든 것을 요구한다면 대부분 계약직으로 이뤄진 직원들의 신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됐다.

문화대국이라는 프랑스 문화정책의 3대 가치는 문화민주화 문화다양성 지방분권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도 이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부산문화재단이 이에 초점을 맞춰 생활문화시대의 선도자가 되길 바란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은 빠져나가지만 그만큼 콩나물이 자란다'고 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부산 시민의 문화수준, 바로 부산의 문화수준을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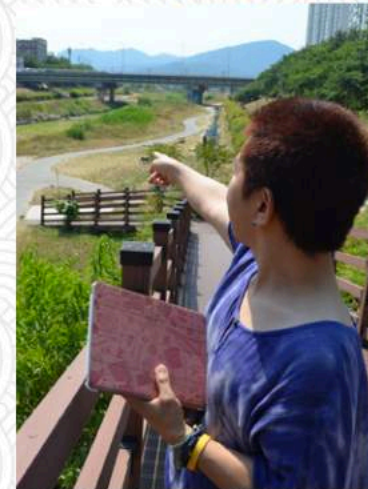
# 꿈 꾸 - 열다

- 20  
# 영국 땅에 K-POP을 전파하고 돌아온 자랑스러운 부산의 아들 딸,  
밴드 세이수미 say sue me를 만나다 방호정
- 26  
# 환경을 걷는 예술, 프로젝트 GR 최동민 대표 이연승
- 30  
# 도시에서 자라고 있는 아파트들에게 홍순연
- 34  
# 부산현대미술관 김성연 관장을 만나다 구본호
- 40  
# 진정 나도, 학습자도 즐거운가? 양근숙

34



20



26



34



40



부산스런 인터뷰 -  
영국 땅에 K-POP을  
전파하고 돌아온

## 자랑스러운 부산의 아들 딸, 밴드 세이수미 say sue me를 만나다

글 | 방호정 · street writer, 영화배우, 작가, 다큐멘터리 감독

날짜 | 2017. 6. 18(일) 오후 5시

장소 | 광안리 해변 인근 합주실

늘어지게 자고 있어야 할 일요일 오후, 밴드 세이수미(기타-김병규, 기타보컬-최수미, 베이스-하재영, 드럼-김창원)를 만나러 광안리 해변 인근에 있는 합주실로 향하는 길에 나는 작은 배신감을 느꼈다. 전날 6월 17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부산대학교 앞 펍 섬데이에서 영국투어 무사귀국을 자축하는 세이수미의 단독공연이 있었다. 그들은 본토 영국식 발음으로 스스로를 '싸이썬미' 라고 소개했다.



왼쪽부터 베이스 하재영 보컬 최수미 드럼 김창원 기타 김병규

성황리에 공연이 끝나고 새벽까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놀다 귀가했던 기억이 흐릿한데, 다음날 곧바로 합주에 몰두하고 있었다. 바다와 맥주를 벗 삼아 흥청망청 신나고 즐겁게 서프록을 연주하는 밴드의 평소 이미지와는 상반되게 그들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되나? 심을 정도로 활활 불타는 열정 꾸러기들이었다.

### 어떻게 영국진출이 성사된 건가요?

병규 영국의 인디레이블인 댄나블리(Damnably)에서 먼저 제안이 왔어요. 원래는 일렉트릭 뮤즈라는 레이블에 소속되어 있어요. 앞으로 영미권 활동은 댄나블리에서 맡게 될 거예요.

### 이후로도 영국이나 유럽 쪽 활동이 지속이 되는 건가요?

병규 첫 번째 영국 투어의 반응이 꽤 좋았다고, 10, 11월 그리고 내년 3, 4월에도 영국 쪽에서 큰 뮤직 페스티벌이 있는데 함께 해보자고 얘기 중에 있어요. 아무썬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원해 주신다면 부산 문화의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산문화입니다. 부산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저희는 어디 안 가요. 서울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젠 다들 직장도 없고 도와주세요.

### 다들 직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젠 직장이 없나요?

병규 수미는 영국투어 전에 직장을 그만뒀어요. 오래 자리를 비워야 하니까, 지금은 베이스 재영이 만 직장을 다니는 중인데 그것도 언제 잘릴지 몰라요. 또 유럽을 오가다 보면.





**수미** 새로 들어온 막내 드러머는 세이수미를 하기 위해 알바도 그만뒀어요. 어린이대공원 스태프였는데 진짜 꼴알바였대요. 꼴알바 대신 세이수미를 선택한 거죠.

**새로운 드러머는 어떻게 합류하게 되었나요?**

**창원** 이제 3주쯤 되었어요. 원래 기존에 다른 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밴드 멤버들이 세이수미 드림 구한다고 오디션 보라고 추천해주더군요. 고향이 진주 산청인데 부산에 음악하려고 왔거든요.

**보통은 음악하려고 서울로 많이 가지 않나요?**

**창원** 서울에도 갔다가 대전도 가고 돌아다녔는데, 부산이 집값도 싼 편이고, 열심히 음악 할 수 있는 씬이 형성되어 있는 편이라 여기에 한번 해보고 싶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발매된 앨범은 어떤 앨범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수미** 총 2장을 발표했어요. 영국에 레코드스토어더라는 오래된 음반박람회장이 있는데, 거기서 판매를 하기 위해 4곡이 들어있는 7인치 싱글 레코드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껏 국내에서 만들었던 정규 1집과 EP앨범의 모든 곡과 신곡 한 곡을 포함한 컴필레이션 앨범을 영국 진출을 위한 데뷔앨범으로 만들었죠.

**영국투어를 떠난 기간은 얼마나 되죠?**

**병규** 5월 1일부터 런던에서 첫 공연을 시작했고요. 며칠 먼저 출발해 4월 27일부터 5월 16일에 돌아왔죠. 20일 정도 머물렀어요. 그동안 공연은 총 7번을 했고요. 런던에서 두 번, 레스터, 글래스고, 그리고 웨일즈의 렉섬에서 열리는 포커스 웨일즈 페스티벌에 참가를 했어요.

**포커스 웨일즈 페스티벌(Focus Wales Festival)은 어떤 성향의 행사인가요?**

**병규** 잔다리 페스타랑 연계가 되어있는 페스티벌이라 잔다리에서 우리를 포함해 두각을 나타낸 국내 인디밴드 57과 페이지츠, 이렇게 총 3팀이 초청되었죠. 일반 관객들도 많지만, 기자들이나, 레이블 스카우터나, 음악마켓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술 먹고 노는 분위기보다는 집중해서 보시는 분이 많죠. 일하러 온 거니까.



**수미**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얼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자료도 주고 영업을 했어요.

**틀기로는 BBC 라디오에서도 세이수미의 노래들이 많이 소개되었다던데요.**

**병규** 영국에선 라디오 방송 DJ들이 새로 나온 음반 중에서 선별해서 노래를 소개해요. 많은 DJ가 우리 노랴 소개해줬는데 꽤 자주 나왔대요.

**수미** BBC 단골 밴드죠. 그중에 '영국의 배철수'쯤 되는 돈레츠라는 굉장히 유명한 DJ가 우리 노랴 소개해주셨다더군요. 그리고 그분이 첫날 공연에도 직접 찾아주셨어요. 공연 마치고 인사를 나눴는데, 나중에 댄나블리 대표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나중에 알려주더군요. 포스가 확실히 남다른 것 같아요.

**영국에서, 아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이브 클럽 무대에 섰다고 들었는데..**

**병규** 런던의 100 CLUB이란 곳이었는데요. 폴 매카트니, 메탈리카, 오아시스, 스웨이드, 스미스, 섹스 피스톨즈 등



전설적인 뮤지션들이 공연을 했던 곳이에요.

**혹시 얼마 전에 내한했던 콜드플레이도 공연했나요?**

**수미** 거기서 사방의 벽에 공연했던 밴드들의 사진이 쭉 전시되어 있는데.. 꼼꼼하게 다 살펴봤는데 콜드플레이는 못 본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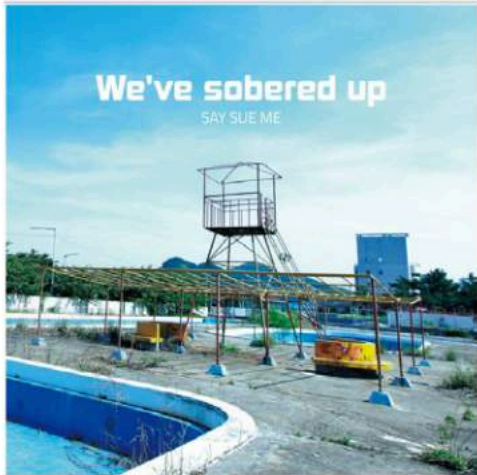
**콜드플레이는 아직 세이수미 급은 아닌가 보군요. 콜드플레이 열심히 좀 해야겠네. (웃음) 영국투어 다녀와서 하재영은 거의 영국사람이 되었다는 얘길 들었어요. 이제 한국 생활에 적응은 좀 되었는지..**

**재영** 네. 뭐 일단 다시 직장을 나가다 보니까.. 이전 한국 사람 다 되었어요.

**해외에서 공연한 게 처음인데, 부산, 서울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면?**

**재영** 일단 관객층이 다양하더군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오시고, 장애인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도 종종 보이구요. 일단 관객이 많았어요.





세이수미 1집 앨범 [We've Sobered Up] 2014년 발매



세이수미 미니앨범 [Big Summer Night] 2015년 발매

수미 부산과 비교하자면 3, 4배 정도 영국 레이블 대표님 말로는 처음 공연을 하는 것 치곤 드물게 관객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좋은 공연장을 잡아주신 것도 크죠. 콜드플레이도 못 서는 무대잖아요. 관객들이 되게 집중해서 공연을 보더군요. 열심히 춤을 추는 관객도 있고, 공연을 마치면 관객들이 줄을 서서 음반과 굿즈를 사더라고요. 정말 다르죠? 아무래도 우리가 동양인들이니까 자주 공연을 오진 못할 테니 현장에서 음반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음반 판매 전에 미리 사인을 해뒀는데, 그런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공연장 분위기나 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있나요?**

병규 일단 무대 위에 장비나 악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앰프도 없고, 드럼도 없이 무대가 텅 비어있어요. 공연을 위해서 모든 장비를 다 들고 다녀야 해요. 뮤지션들 입장에선 고생이긴 한데, 우리 장비들을 들고 다니니까 어디서든 우리가 의도한 사운드를 일정 수준 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영국투어 중 새로운 팬들도 많이 생겼을 텐데, 기억에 남는 팬은 있나요?**

수미 영국에서 5일 간 연달아서 다른 지역에서 공연을 했는데, 브리스톨에서 우리를 처음 본 20대 초반의 영국 청년이 다음날 웨일즈에서 있었던 우리 공연을 보러 기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우리 밴드 티셔츠를 입고 나타났는데 너

무 반기웠어요. 공연 끝나고 같이 맥주 마시고 놀았어요. 그 친구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현재 부산에서 활동하는 밴드가 영국 투어를 다녀온 건 최초고, 확실히 드문 경험인데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병규 부담감을 좀 덜어냈다고 해야 하나? 밴드를 잘 꾸려가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어야 하는데 불필요한 부담감도 컸던 같아요.

수미 저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약간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항상 잘못하고 있다는 불안이 있었는데, 그냥 하던 대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란 생각이 들었어요.

재영 저는 밴드에 대해 더 무게감이 생긴 것 같아요. 100% 밴드만 생각할 순 없잖아요. 당장 집에 가면 뭐 먹을지도 생각해야 하고, 근데 이전 밴드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세이수미는 최근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영국투어도 그렇고 작년 여름에 밴드의 만형이었던 드러머 강세민의 사고도 있었고.. 강세민은 지금 어떤가요?**

(\*세이수미의 만형이자 드러머, 포스터, 앨범 자켓, 티셔츠 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해 온 강세민은 작년 여름 불의의 사고로 3개월 이상 혼수상태였다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

수미 치료는 일단 중단된 상태고 요양 중이라 빨리 나아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전엔 반응하는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얘기하면 웃기도 하고, 우리 얘기를 듣고 있는 게 느껴져요.

**이제 새로운 드러머가 합류했는데, 아마 아직은 세이수미 멤버로서 자아가 생겨나는 중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세이수미는 어떤 밴드인가요?**

창원 서로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노련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음악들이 잔잔하면서도 깊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라이트한 담백함이 매력인 것 같아요. 기존의 매력을 잘 살리는 게 저희의 과제죠. 편하게 들리지만 사실 굉장히 섬세한 밴드라고 보고 있어요.

**음악적으로는 맑고 인간적으로는 어떤가요? 구타나 일차려 같은 게 있다면 폭로해도 됩니다.**

창원 아무래도 제가 막내다 보니까 제가 챙겨드리고 보필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었는데, 최대한 부담 가지지 않게 배려해주는 것 같아요.



병규 처음 오디션을 끝내고 이 친구가 돌아가고 나서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데 수미랑 재영이가 이 친구를 엄청 맘에 들어 했어요. 합주실에 처음 오는데 아이스크림을 사왔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사람이 참 괜찮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수미 처음 만나는데 먹을 것을 사주고 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죠.

재영 아이스크림을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합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밴드 세이수미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요?**

병규 세민이 형이랑 한창 다음 정규앨범 얘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그런 사고가 나서 올 스톱이 되어있던 상태였다가, 이제 새 멤버도 들어왔으니 기존에 있던 곡들부터 새롭게 작업을 해야죠. 이전 공연도 공연이지만 새로운 앨범을 위한 곡 작업이 앞으로 가장 중점적인 행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을 걷는 예술 프로젝트GR 최동민 대표

글 | 이연승 · 연행기획면-얼굴, 고삐풀린영화사 대표

날짜 | 2017. 6. 15(목) 오후 2시

장소 | 북구 화명동 대천천 인근 카페 루왁



2016 ECO ART TRIP

최동민 대표를 처음 만난 건 부산문화재단의 젊은 예술가 문화예술지원사업인 '2012 커넥션 박스 인 유럽(Connection Box in Europe)'에서였다. 당시 영국의 문화·예술 현장을 함께 경험하고 한 방에 모여 밤새 얘기하며 친해진 계기가 어찌면 '프로젝트GR'의 탄생을 이끈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왜냐하면 이듬해 최동민 대표는 영국에 함께 간 나와 박재현(안무가)에게 부산국제연극제 참여를 제안하며 프로젝트GR을 만들어 소속 극단에서 독립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후 IT 업체에서 일한 경험을 더해 활발히 다원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성과로 작년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한 17개 시도 지역예술특성화사업의 대표 사례 중 특별히 언급되어 위원장 상을 받기도 했다. 올해도 역시 재단의 기획특화육성사업-다원예술 부분의 지원을 받아 '에코 아트 트립(Eco Art Trip)-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를 진행한다. 이번엔 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여행을 떠나는지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북구 대천천의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나 보았다.



**이연승** 3년째 '아트 트립' 시리즈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환경과 생태의 의미를 담은 에코(eco)가 제목에 붙으며 공공예술의 형태로 많이 변한 것 같은데요?

**최동민** 네, 처음에는 여행이라는 소재로 예술가들의 공간적인 정서 교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영국과 한국의 예술가들이 교류하고 여러 곳을 여행하며 작업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과정을 꾸준히 기록하다보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인간의 욕망과 함께 사라져가는 것들 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술가들만의 교류가 아닌 환경과 지역 사람을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프로젝트GR은 지난해 '에코 아트 트립'이라는 제목으로 기후변화와 도시교통에 대한 문제를 다루며 보행자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부산동구청과 그 앞 수정시장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프로젝트를 진행 했었다. 올해는 환경에 대한 조사와 지역민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사람들의 손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생물 다양성에 대한 문제와 결합하여 업사이클링 아트<sup>1)</sup> 형태로 전시한다고 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간의 범위도 꽤 넓은 것 같고, 도심이 아닌 생태 하천이기 때문에 지난번과는 다른 점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장소 선정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 하면서 생태, 생물다양성 문제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참여한 예술가들과의 교류에서도 그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여 올해는 부산의 대표적인 4대 지류(온천천, 수영천, 동천, 대천천) 중에서

1) 주변의 버려지는 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예술작품으로 탄생시킨





2016 에코 아트 트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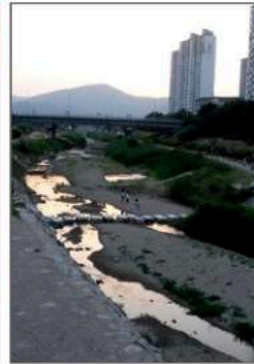
한곳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싶었어요. 사실 공연하고 전시하기 좋은 곳, 경치 좋은 곳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다 우리 동네에 내가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대천천이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있었고, 우리 동네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동네 공동체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제도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로 정하게 되었죠.

'에코 아트 트립(Eco Art Trip)-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는 8월 19일 부산시 북구 대천천 하류(북구 보건소 부근)에서 에코전시 해설사가 함께하는 노을산책(오후 7시)과 별빛산책(오후 8시)의 형태로 패키지 관람을 도입하고, 자유 관람(오후 6시~9시)을 더해 진행 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특히 지역 시민들과 미래 세대의 환경에 대한 역할에 중점을 두어 여러 기관과 민간단체, 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한다. 우선 부산광역시, 부산 북구청이 관련부서 협조와 정책 지원을 한다. 부산 기후·환경 네트워크에서는 환경에 대한 조사와 자문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6월부터 금명초등학교, 대천리중학교, 부산사대부고, 부산시 대학생 그린리더 학생들이 참여해 대천천환경조사와 업사이클링 아트 제작을 위한 교육과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에는 모바일 앱과 무선통신장치를 결합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특별히 사용하는 기술이 있나요?**

올해도 역시 스마트폰 근거리 통신 기술인 비콘(Beacon)을 사용하여 스토리를 여행하고, 대중들이 체험하기 더욱 좋은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기술은 환경을 생각하여 무대, 홍보물을 최소화한 곳에서 공연자와 전시 작품, 관객을 연결하는 매개가 됩니다.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하고, 끝나면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팸플릿이나 포스터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죠. 그리고 참여 인원과 활동 기록이 모두 데이터로 남기 때문에 참여도를 파악하는 데도 아주 유용합니다. 이번엔 관람 범위가 왕복 1.5킬로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반경 200미터까지 인식이 되는 비콘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요즘 공연장이나 전시관에서도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뒤적거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사진도 찍어야 하고 SNS에도 재빠르게 올려야 하는 것이다. 어차피 꺼내 보는 물건이라면 꺼내놓고 다니게 하자는 발상에서 시작된 방법이 큰 효과를 본 경우다.



2017 ECO ART TRIP -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일시 : 2017. 8. 19 (토) 19:00~21:00  
장소 : 북구 대천천 (화명교 부근)

도시 생태 하천인 부산 북구 대천천을 배경으로 플라스틱 쓰레기와 생물 다양성의 문제를 예술의 언어로 함께 고민해보는 '친환경 아트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GROI 추구하는 다원예술은 어떤 것인가요?**

다원예술은 예술과 함께 시민, 정책, 환경이 포함된 과정도 중요하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예술작품이 감동을 주어 확장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다원예술은 예술과 환경, 사람이 더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를 결합하여 과정의 변화가 공감을 주어 실천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환경에 대한 주제를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요?**

환경과 예술을 주제로 다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술단체뿐 아니라 공공기관,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상호작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아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경에 대한 프로젝트는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환경에 대한 것은 범위가 넓고 우리가 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술이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름답게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예술인 것 같습니다.

최동민 대표의 작업은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 집중하여 '어떻게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을 담고 있다. 모두가 공감하는 환경에 대한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프로젝트GROI 추구하는 목표인 것 같다.

**환경에 대한 프로젝트 외 개인적으로 하고 싶고 계획 중인 것이 있나요?**

부산을 기반으로 예술의 국제 교류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예술만큼은 드넓은 바다를 품고 있는 부산이 관문이 되면 좋겠어요. 부산을 관문으로 아시아 문화예술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다양한 문화권과 문화예술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싶어요. 지금 부산국제춤마켓이라는 아트마켓 플랫폼에서 기획자로 참여하여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예술프로젝트도 세계 곳곳과 연결할 겁니다. 우리는 우주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프랑스의 문화 이론가 미셸 드 세르토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보행자의 움직임이다.'라고 한다. 걷기는 수로 셀 수 없고 촉감적인 이해와 근육 운동을 통한 스타일을 창조하기 때문에 공간에 형태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프로젝트GR의 환경을 걷는 예술은 공간을 재생하는 환경운동이자 다원예술의 영역에 있다. 일상적 공간의 색다른 경험이 될 '에코 아트 트립'과 함께 한 여름밤의 판타지에 빠져보길 희망한다.



# 도시에서 자라고 있는 아파트들에게

글 | 홍순연 · (사)삼진이음 이사

매일 아침 새벽 4시가 되면 도로에 물청소하는 차들이 집 앞을 지나간다. 드르륵 드르륵 바닥을 긁어 먹는 소리가 들리면 한번 움찔하는 아이의 모습에 조금 미안하기도 하다. 도로변에 위치한 작은 집으로 이사 온 첫날부터 들린 이 소리에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어색한 듯 아이는 몸으로 이 소리를 받아들인다. "엄마 연기 아저씨 왔어요?"(아이는 방역 차 소리로 들리는 듯하다) "아니 괜찮아 조금 더 자도 돼" 이내 안심을 하고 잠에 든 아이를 보면서 왠지 우리가 사는 이곳이 정말 살 수 있는 곳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럴 때 마다 '다시 이사를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매일 들곤 한다. 우리 집 주변은 공사장 주변에 있다. 이제 10층 정도 올라간 아파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라고 있다. 처음에는 '큰 칸막이벽 위로 올라오는 것이 언제쯤일까?' 했지만 이제는 쑥쑥 자라서 매일 아침 옥상에서 바라보는 광경은 마치 콩나물시루에 콩나

물 크듯이 쑥쑥 자라고 있다. 대연동 지역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산 능선들이 보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아파트의 층들이 올라가고 있다. 여기가 끝이 어딘가 싶을 정도로 산들이 깎여 나가고 레고 블록처럼 정형화된 모습이 정돈된 모습으로 도시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이런 모습은 도시가 품어야 할 일반적인 요소이긴 하다. 도시는 이미 이러한 형식과 개발에 익숙해 있고, 건축은 그에 부응하여 도시 변화를 인정하고 함께 커가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요즘 아파트가 지어지는 공사판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아파트가 언제까지 도시에서 환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 아파트 지대로 변해가는 부산

2015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부산은 아파트 비율이 52%로 증가하였다. 여기에 빌라 비율 9%까지 더하면 이미 부산도 대부분이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도 부산은 초고층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반면 단독주택 비율은 31%로 매년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몇 년 전부터 진행된 노후 된 주거지를 재개발 지역이 부산 전체가 다 묶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대기 중인 아파트 지역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노후 주거지의 거주 환경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단독 주거지가 줄어들고 아파트가 늘어나는 통계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파트 사업들이 번창하면서 획일화된 도시의 물리적 시각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임주율 30%에 문제가 더욱 크다고들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렇게 원주민의 사라지는 현상은 다르게 보면 과거에 집 앞 골목에서 이뤄진 수많은 커뮤니티를 지속할 수 없음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된다. 현재 아파트의 시스템은 사적공간이 강화된 아파트로 조성된다. 아래 위층도 소통이 안 되고, 문제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고민과 식막함, 두려움에 대한 생각이 든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럼 이제 아파트도 옛날에 골목길 문화가 조성된 커뮤니티 문화가 다시 살아나야 하지 않을까?

지금 일본에서는 리퍼블릭(RE Public)이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잃어버린 공간을 다시 찾자는 운동이다. 즉 도시에서 찾을 수 있는 즐거움을 발견해보자는 의미이다. 그것도 사적인 공간이 아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다양한 제안을 한다. 점점 리퍼블릭(RE Public) 운동이 커지면서 사적 공간도 공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으로 확장되고 있다. 예를 들면 빌딩 측면부를 도심의 이정표를 표시하는 공공디자인으로 바꾼다든가, 심지어 빌딩 1층을 도시를 연결하는 통로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자는 운동도 진행 중이다. 이 운동에서 조금 주목한 것이 아파트 커뮤니티의 다양성이다. 기존의 아파트 단지 내에 법적인 기준으로 조성된 오픈스페이스 공간



을 녹지나, 일부 놀이터로 활용 하는 한계를 극복해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동텃밭, 공동 애견놀이터, 공공놀이터 등 조금은 획일적인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다시 한 번 주민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급기야는 아파트 단지에 공원일부를 야간카페로 개장하여 주민들의 모임장소로 제공하고 있다.

**입어버린 소통공간을 찾아서**

이러한 움직임이 부산의 아파트에도 조성되었으면 한다. 우선 부산의 아파트에는 자동차 도로가 없는 공간이었으면 한다. 보통 여기까지는 단지계획을 할 때 고려를 많이 한다. 그리고 1층 공간이 모두 공공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면 한다. 주민센터, 노인시설, 체육관을 별도로 조성하지 않고, 각 동별로 공공커뮤니티 공간을 하나씩 가졌으면 한다. 그래야 101동도 가고 102동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일부는 오픈되어 각동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으면 한다. 동과 동 사이에 잔디가 깔려있고 트랙이 있는 운동장이 놓이며, 시간적 제약은 조금 있겠지만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으면 한다. 혹은 주변 리틀 야구단의 전지 훈련장소로 쓰이면 어떨까? 또다시 동 사이를 거닐다 보면 어르신들의 텃밭에서 토마토가 익어가고 있고, 주말에는 텃밭 야채마켓이 개시하여 어르신들에겐 짭짤한 수익을 안겨 드리고 신선한 야채들을 살 수 있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 다시 이어지는 길을 따라가면 유모차 엄마들의 수다장이가 유아전용 놀이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이로 인해 세대 간 소통이 가능한 공간들이 아파트 속에 녹아들어 갔으면 좋겠다. 아파트 단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101동에서부터 110동 이상 돌아다니다 서로 눈인사도 하면서 서로 간의 소통이 시작되었으면 한다. 세 번 정도만 마주친다면 아마도 아이들의 이야기를 해도 좋을 듯싶다.

더불어 이웃 주민들이 확장되었으면 한다. 차도 건너편, 단지사이에 있는 주택지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 공간을 즐겼으면 한다. 도로가 사이에 있다면 아파트 조성 때 주변의 주거지와의 연결통로를 계획하여 자연스럽게 유입하도록 동선을 확장해보면 어떨까? 이것 또한 아파트 주민들이 생각해야 할 배려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지어질 동안 주변의 지역주민들은 소음과 동선의 불편을 감수했고, 그만큼의 이해에 의해 지어진 결과물 일수 있기 때문이다. 1년에 한 번쯤은 마을 축제를 기획해보면 어떨까? 프리마켓과 공동방향이 어우러지면서 형님, 동생이 생기고 아이들에게는 삼촌, 이모들이 생겼으면 한다. 물론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함께 소통하는 맛을 느껴본다면 아마도 그 맛을 끊지 못할 것이다.

몇 년 전 사상구 삼락동에 생활박물관이 들어선다고 기획 프로젝트를 맡은 적이 있다. 건축을 전공한 나에게 그럴싸한 건축물보다 무엇을 넣을 것인지를 고민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 물리적인 계획만 했던 나에게 문화적 요소를 조사하여 콘텐츠 발굴을 70% 정도 수행한 프로젝트였다. 어떻게 이 숙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 사상을 잘 아신다는 재야의 교수들을 만나기 위해 사상의 온 동네를 여름 별에 다녔던 기억이 난다.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어색했고 모른다던 어르신들의 답만 듣고 왔다.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옛 사진과 도시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연대별 지도를 크게 프린트를 해서 들고 다니니 점점 그분들의 동네이야기 그리고 생활자원들이 발굴되기 시작하였다. 세 번째쯤 찾아보니 가족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제는 개관한 지 1년 즈음 된 박물관에서 만나는 분들이 저를 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들 잘 크나?" 이다. 아들은 얼굴도 모르는 어르신들의 인사와 관심으로 잘 크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가 지금도 도시 한 켠에서 숨 쉬고 있는데... 부산의 아파트 주민들(부산시민의 약 60%)은 이렇게 중요한 사람간의 소통의 맛을 즐기고 있는지 의문이다.

내가 사는 동네는 퍼즐처럼 다시 아파트로 맞춰지고 있다. 2018년이 되면 10아파트를 필두로 G0아파트 P0아파트가 입주되고 다시 건너편에 산 능선에 지어진 집들의 철거가 들어가서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다. 머지않아 원주민들은 다시 이사를 가고, 70% 이상은 다시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다. 4차선 사이에 수령이 20년 가까이 된 나무들은 그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건너편 주택지에는 아파트로 바꾸기 위한 동의서장구 현수막이 걸릴 것이다. 주민동의율 97%. 이 중에 다시 이 동네로 돌아올 아은 얼마나 될까?

우리는 다시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익숙해지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는 지어질 것이다. 도시의 한 부분으로.. 이 중심에 사람간의 소통이 익숙해지기를 기대한다.



# 부산현대미술관 김성연 관장을 만나다

글 | 구본호 · 본지 편집위원

날짜 | 2017. 6.14 (수) 오후 2시

장소 | 을숙도 부산현대미술관

6월. 필자의 기억으로 6월이면 따뜻한 여름의 시작이었다. 오늘은 따뜻하다고 하기엔 더운 여름 날씨다. 낙동강을 지나 바다와 강바람을 쐬면서 찾은 곳, 부산현대미술관이다. 김성연 관장을 만나기 위해 들어선 이곳은 월요일이라 한산한 느낌, 아니 아직 완공되지 않은 미술관의 내부는 외부의 더운 날씨에 비해 훨씬 시원한 느낌을 준다. 3층 학예실과 관장실 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할 위해 웅웅거리는 글라이드 소리가 아직 미술관 시설 완비 정도를 짐작케 한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지 관장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을 인터뷰하자니 왠지 호칭부터 어색하다. 며칠 전부터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인사말과 함께 정리한 메모지가 왠지 머쓱한, 그래서 그런가 축하한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동행한 포토그래퍼에게 농담을 던지면서 얼렁뚱땅 메모지를 힐끔 보여 질문을 던졌다.

김성연 관장님은 신진작가 발굴을 비롯한 젊은 작가 지원부터 부산의 미술을 해외로 전파하는 것까지, 대안공간 반디 운영 등 대중과의 호흡을 위한 미술, 미술관 문턱을 낮추는 역할까지, 미술의 대중적 향유라는 아주 얇은 부분에서 미술의 깊숙한 전문적인 부분까지 다양하고 폭넓게 진행해온 진정한 미술가 겸 행정가였다.



## 부산현대미술관 초대 관장

**부산현대미술관의 초대 관장님으로 부산문화예술계나 미술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무엇보다도 아직 많은 분께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인사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새로 생기는 미술관인 만큼 걱정과 기대의 시선이 모두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공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큰 만큼 전시나 운영이 궁금하시겠지만 짧은 시간 내에 미술관의 내·외부 환경과 여건을 구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이 급하긴 하지만 뜻하는 대로 신속하게 진행되기는 힘든 구조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전시준비보다도 내외부 공간을 정비하는 일이나 프로그램 구축과 같이 고민의 시간과 노력에 비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을 텐데 긴 호흡으로 봐 주시고 조언 주셨으면 합니다.

**이후에 기획, 프로그램 등 내부적인 질문을 드리겠지만, 우선 부산현대미술관의 방향, 의미 등 향후 지향점에 관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 개인적으로는 지역에 공공미술관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도시의 규모나 인구수로만 본다면 부산에서 미술관 두 곳도 부족하지요. 서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거점의 역할을 해야 하는 현대미술관은 인근지역의 향후 계획과 인구 유입예상 등 서부산 지역의 확장과 발전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보다는 가까운 미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현대미술관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생태와 환경 그리고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동시대 미술 현상을 담는 공간으로써 커뮤니티의 참여와 소통 또한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미술관의 지향점이 아닐까 합니다.





학교 같다. 마트 같다는 부산현대미술관의 외형

**미술관 외관이 마트 같다. 학교 같다 등의 말이 많았습니다. 새롭게 정리, 단장, 치장? 잘 맞는 단어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런 외관을 꾸미는 계획은 있나요?**

••• 초기부터 외관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미술관의 당면 과제중 하나입니다. 부산시립미술관도 초기엔 공장 같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지만 내용적인 측면으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미술관 건물이 보다 예술적으로 설계가 되었으면 인지도나 주목성을 높일 수 있었을 텐데 저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극복할 여러 대안을 고민 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딱딱한 건물의 내외부를 수직정원, 그린월과 같은 개념으로 생태, 환경 등과 잘 어우러지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현대미술관 개관준비 및 관리운영 종합계획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주차장, 광장 등에 유명작가의 작품을 세워 주목성을 높이자" 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 유명작가의 작품을 설치한다면 단번에 홍보나 관심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겠지만, 추후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크고 또 미술관의 정체성도 고려하면서 진행해야겠지요. 저는 오히려 을숙도라는 자연 환경과 어우러지게 하는 것에도 관심을 두고 있어서 미술관을 너무 드러나지 않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크린 역할을 할 수 있는 벽면 구성을 포함하여 여러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과도 맞물려있어서 아직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의 불편. 사실 미술관에서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어렵겠죠. 프로그램 등 볼거리에 따라 유입인원은 달라지지 않을까. 이곳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며 자가용이 아니면 찾아오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전부터 접근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들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이 심리적 거리만큼 크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이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하단역에서 오는 버스가 많고 최근 현대미술관 정류소를 신설해서 미술관 바로 앞에 버스가 정차하니 생각보다 불편하진 않습니다. 하단방향으로 나갈 때, 조금 떨어져 있는 기존의 육교를 건너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건널목 설치를 요청했으나 안전 및 교통문제로 쉽지 않

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순환차량을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쪽 끝자락으로 강을 건너간다는 심리적 거리 때문에 더 멀리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만 막상 미술관에 와 보시면 다르게 느낄 것입니다. 결국, 와보고 싶은 미술관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부산권역을 연계한 미술관 프로그램

**언론 인터뷰에 서부산권역의 재생적 방안과 주위 환경적 요소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던데, 서부산권역의 예술공간과 감천문화마을, 무지개공단 등 지역의 특징적 장소 등과 연계하는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주변의 문화 환경과 협력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인접해 있는 공연중심의 을숙도문화회관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문화회관을 잘 이끌고 계신 관장님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흥티아트센터와도 상호 협력할 부분들에 대해 일찍부터 만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감천문화마을 등과도 연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는 에코센터와는 자연생태와 관련한 프로그램, 자원순환센터와의 재생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 상호 협력해 나아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 봅니다. 좀 더 나아가면 경남도립미술관, 김해문화의 전당, 클레이아크 등과 넓은 범주에서 효과적인 협력도 타진할 계획입니다. 또 인근의 학교나 연구기관 등 잠재적 수요가 되는 여러 기관에 대한 가능성도 조사도 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개발과 인구유입에 따른 커뮤니티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에코센터의 자문위원을 했는데, 그때 에코센터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자연생태에 따른 프로그램, 특히 아이들 교육프로그램 연계가 잘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도대체 안하시는 일이 뭐가요? 정말 여러 방면으로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에코센터가 현대미술관과 큰길 사이 에 두고 있는데 생태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미술관 뒤편으로는 환경과 관련한 청소년 체험수련원이 들어올 계획도 있다 하니 주변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잘 구성하고 협업하면 상호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전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역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술 지상주의를 추구하기보다는 미술관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소통의 매개공간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미술관의 향후 운영 방향인 '참여'와 '소통'에 관한 앞으로의 방향이나 방안에 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미술만을 위한 미술관의 역할에 너무 치중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현대미술이라는 키워드로 진행되었을 때 시민들의 관심이나 참여가 저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술관이 없었던 지역에서 처음 찾은 시민들이 미술과의 괴리감부터 느껴 두 번 다시 찾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술의 내부 문제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특히 초기에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능한, 관객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겠죠.





시민이나 관람객이 외형, 즉 밖이 보기 좋다고 미술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막연히 좋은 전시를 하니 “오세요~”라고 한다면 교통불편, 불거리 미비 등의 핑계로 잘 오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불편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교육이나 체험 등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기회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건물 외부보다 내부에 더 많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예산으로 당장 많은 부분을 보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결국 전시나 프로그램 등 내용이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학예사 3명이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내년이 되어야 몇 명 더 총원이 될 예정이라, 관장의 의욕이나 외부의 기대만큼 조속히 진행되기 어렵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아이디어와 계획은 있지만, 공공기관인 만큼 절차와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형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미술관의 위상을 위한 전시, 그리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도서관을 예술적인 감각으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흥미로운 공간으로 잘 만든다면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하나하나의 공간과 프로그램에도 신경을 써서 구성하는 것이 초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데 현재 내부 인력으로는 연구하고 준비하기가 벅찬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현재는 시설과 관련된 문제들을 점검하고 있고 기초적인 준비 단계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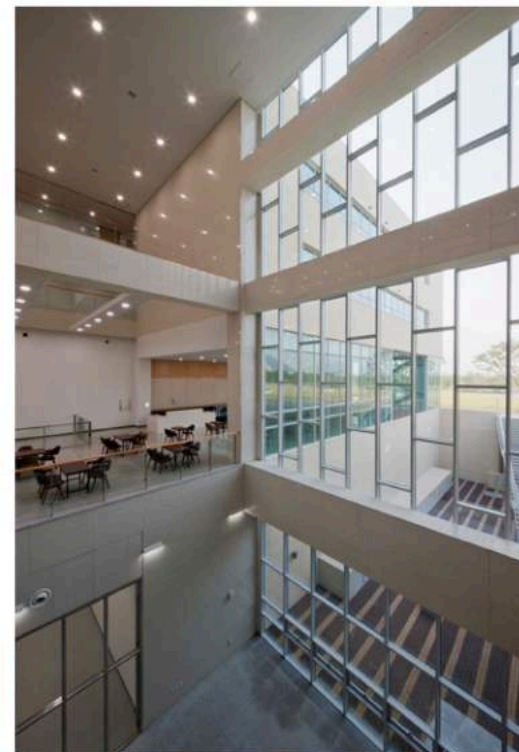
부산문화재단 그리고 「공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이나 본 소식지인 「공감 그리고」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문화재단 비전(2020), 정책수립에 참여하기도 했고 문화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

단은 과거 부산의 문화행정에 비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지원 환경을 잘 조성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문화재단은 해외교류를 포함하여 초기부터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쌓여가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한 생각이긴 하지만, 그동안 우수한 지원정책들을 펴 왔는데 그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생적, 자립적 활동들이 위축되지는 않는지를 살피면서 진행한다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문화잡지들은 여럿 없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공감 그리고」는 잘 유지되고 있잖아요. 재단의 예산으로 안정적인 출판이 가능하니 그럴겠지만 다른 소규모 자생적인 잡지들이 활동이 멈추게 되는 상황을 잘 살피면서 상생하는 재단, 그리고 계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미술관도 그렇습니다. 미술관의 역할 만이 아니라 사적인 혹은 작은 미술공간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관이 생기면서 주위의 작은 공간이나 프로그램, 활동 등이 없어지거나 위축이 된다면 이 또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상 저도 이런 큰 규모나 공적기관이 생겼을 때, 그것이 생기면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가를 살펴야 하는데, 개별 작가들을 포함한 이들 활동과도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와 도움을 줄 수 있을지의 문제를 동시에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문화인프라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전시장, 수장고, 도서관과 카페 예정지 등을 둘러보았다.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걸어야 하는 벽면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압정 하나 꽂을 수 없는, 마치 구획을 정한 듯 벽면 사이사이에 튀어나온 기둥, 가시적으로 불편한 벽면 하단의 걸레받이, 전시장 가운데에 우뚝 솟은 여러 개의 기둥 등등 벽면에 부착된 작품을 감상하기 위한 시선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해 손볼 것(바꾸거나 수리)이 많은 곳이었다.

금년 하반기 부산미술대전이 이곳에서 전시가 된다. 부산현대미술관 비공식적 첫 오픈 전시라 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미술인이나 관람자의 시각과 육체적 피로를 풀어줄 수 있 기까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다. 내년이면 개관 오픈뿐만 아니라 부산비엔날레도 이곳에서 열 리는데 말이다. 미술관을 찾는 이들은 과정보다는 결과만 보고 평가를 할 텐데, 현재 전시에 부적절한 시설, 공간의 문제 모두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고민이 깊 다는 김성연 관장의 말이 귀에 맴돈다. 그의 말과 같이 성급한 기대보다는 여유롭게 또는 차근차근 진행 과정을 주시하면서 부산미술의 발전, 문화의 발전을 위해 후방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 진정 나도, 학습자도 즐거운가?

글 | 양근숙 · 동익대 외래교수, 세상과 소통하기 대표



이른 아침 생선을 가득 실은 배들의 뱃고동 소리도, 이를 기다리는 아낙네들의 분주함도 볼 수 없이 6월의 통영 바다는 고요하고 잔잔했다. 그러나 일상의 조용함과 달리 하루에 3번 정도 시외버스가 들어오고, 젊은이들이 모두 떠나고 노인들이 지키는 작은 마을 서피랑은 '알·쓸·신·잡·통영편'을 통해 통영의 바다를 한 눈에 관망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산자락을 배경으로 다닥다닥 집을 짓고, 궁핍함을 드러낸 시멘트벽으로 덧칠되었던 마을에 알록달록 색을 입히고, 몇 번이고 쉬어가야 했던 오르막길에 박경리의 글귀를 적고 테크층과 포토존을 만들었다. 또한 서피랑과 이어진 총렬사는 이순신 장군의 충(忠)에 백석의 러브스토리(愛)가 더해지면서 동피랑과 함께 통영에 오면 꼭 들러봐야 하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무엇보다 서피랑 아래 길을 따라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사진이 담긴 서화는 매우 감동적이었다. 자칫 관 중심의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에서 소외될 수 있는 마을 주민들, 그들의 이야기를 사투리 그대로 담아 사진과 일상적인 공간, 담벼락에 전시하였다. 마을 어르신들의 삶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진 한 컷과 당신의 생애를 담은 구수한 사투리들... 참 이쁘다. 길가다 만나 더 정겹다. 서피랑에서 누군가는 멋진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박경리의 글귀를 만나고 총렬사 계단에서 백석을 만나기도 한다. 같은 장소에서 무엇을 만나고 의미 있게 해석하느냐는 그가 어떤 학습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부산의 수영야류 탈 만들기



2017 지역특성화 '미인도'



2017 인문지도 미인도

### 1. 우리가 가진 달란트에 집중하라

처음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사업을 수행하고자 결심한 것은 강의를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시고, '정말 고맙다'라고 하시던 학습자들 때문이었다. 어렵게만 여기던 역사를 그림이나 영상 매체 그리고 시대를 대변한 노래 등의 문화로 접근하면서 학습자들은 역사적 지식은 물론 그림 한 폭, 노래 한 자락이 의미 있게 다가온다고 하였다. 예전에도 있었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들었을 것인데도 어설픈 인문학자가 그림과 노래에 담긴 이야기를 입히고 역사적 배경을 더하니 새로운 의미가 더해진 것이다. 교과서에서 만난 그림, 텔레비전에서 보는 드라마, 음악회에서 불러보는 노래, 축제에서 즐기는 춤 등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김춘수가 말한 것처럼 그에게 '꽃'이 된 것이다.

물론 모든 문화예술교육이 의미 있는 경험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교수자는 누구나 최상의 질을 가진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의미 있는 경험의 주체가 되는 것'을 지향한다. 나 또한 '학습자들이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문화 향유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늘 되묻는다. 그 질문의 끝에 도달한 것, 교수자도 학습자도 편안해 하고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을 토대로 하는 것이다.

우리 단체가 가진 인문학적 콘텐츠를 일선에서 접하게 자료와 콘텐츠 그리고 역량 있는 강사들을 기반으로 문화 예술적 주제로 탐색과정을 통해 문화자산을 역사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체험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상적으로 알던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을 확장할 수 있었으며 장르 간의 융합을 넘어서 주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학습대상자들을 부산에 일정 기간 머물다 타지로 이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강서 지역 군부대 가족 대상으로 '아지매, 부산학에 빠지다'를 운영하였다. 이방인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한국사를 토대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부산의 문화자산을 보고 듣고, 즐기게 하는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무엇보다 학습자 본인의 즐거움을 이우도 함께 나누고자 했으며 프로그램 종료 이후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메시지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가족 혹은 친구들과 시간을 내어 역사적 장소들을 탐방하여 자연스럽게 이방인이 아니라 자신이 부산에 사는 사람임을 자랑하였다.

### 2. 학습자와 운영단체와 교학상장(敎學相長)하기

'함께 가면 더 멀리 갑니다.'와 교학상장(敎學相長)의 단어는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행사에서는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이 매개가 된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사업 목표로 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에 꼭 맞는 말이 교학상장이다.

### 3. 치열하게 고민하기

내가 가진 달란트에 집중하였던 2015년은 학습자들이 지식의 향유에 만족도가 높았다면 올해는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미남사람들 도서관으로 가다'에 정진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에 기반 하여 운영되는 것이라면 지역민이 바라는 것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이름 뿐 이용자가 미미한 작은 도서관을 교육장소로 택한 이유도 지역 안에 사람과 사람, 세대 간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소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재미난 거리들(노래, 음악, 그림, 공예)을 준비하고, 함께 하는 즐거움을 이우과 나눌 수 있다면 도서관에 사람들이 더 모일 것이고 자연스럽게 소통의 공간으로 다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를 위해 '넘보기' 과정과 '치열함'의 학습과정이 필요하다. 지역민이 함께 문화예술로 하나 되어 있는 '뒤다'나 '큰들'의 사례에 대한 '넘보기'를 통해 사업운영의 방향성을 다질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단체의 특성을 기반으로 학습자의 의미 있는 문화향유의 경험을 줄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치열한 학습'을 한다.

언젠가 강하늘이란 배우가 영화 '재심'의 시나리오를 인용하여 물음을 던진 적이 있다. "사람답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고, 돈일까, 명예일까. 여기서 던진 질문. 배우답게 살려면?.... 나도 다시 감히 물어 본다. "강사답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나는 답한다. '나'다운 것의 시작은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의 '자리'에 당당할 수 있는 준비다 라고, 오늘도 나는 '학습자들을 위해 최상의 교육을 준비 했는가?' 그리고 '서피랑 담배락의 사회처럼 그 해맑고 진솔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꼬집어 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준비한다.



# 문화 돌보기

**I** 46  
# 산업유산의 문화공간화, 그 시대적 의미 강동진

50  
# 잃어버린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공간, 문화공장 F1963 강재영

**II** 54  
# 부산의 생활문화 정책현황과 과제 서영수

50



50



50



54



54



# 산업유산의 문화공간화, 그 시대적 의미

글 강동진 ·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 산업유산이란 것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 때 가치가 생겨난다는 의미를 가진 '산업'과 옛 것에 매달려야 의미 가치를 '유산'이란 상극의 두 단어가 만났다. '산업유산', '원래의 산업기능은 잃었지만 국가 또는 지역 산업발달과정에서 큰 의미를 가진, 남겨두었을 때 가치가 큰 산업시설'을 말한다. 가끔 '폐(廢) 혹은 '유휴(遊休)라는 단어가 앞에 붙기도 한다.

산업유산의 본격적인 출발은 '집약적 대량생산'이란 이름으로 인류 발전사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산업혁명이 제공했다. 그래서 산업유산의 탄생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18세기 초반을 기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전근대시대의 재래산업도 산업유산의 영역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처럼 산업유산의 시작점에 대한 정의는 다소 혼란스럽다. 이에 반해 끝점은 비교적 명확하다. (등록)문화재를 인정하는 최소 기간인 50년을 끝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1)</sup> 그렇다면 산업유산은 '50여년 이상 지역을 기반 한 산업과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구도심이나 향만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산업적 역사물'로 정의할 수 있다.<sup>2)</sup> 이처럼 산업유산은 우리 삶과 가까이, 또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산업유산에 대한 우리의 인식 전환만 전제된다면 '친근한 생활유산'이자 '새로운 도시문화 재창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한 셈이다.

1) 그러나 상황에 따라 더 짧은 역사를 가진 산업시설도 산업유산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심지어 현재 사용 중인 시설도 그 역사성만 인정된다면 산업유산으로 평가받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2) 입지적으로 농 · 임업과 관광업은 예외이다.

## 산업유산의 문화공간화, 그 시대적 의미



페조전소에 들어선 취리히 레스토랑(소재 : 취리히웨스트)

## 산업유산은 왜 빛나는 것일까?

산업유산의 영역은 전 산업을 포괄하지만 협의로는 18세기 산업혁명을 낳게 한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을 지칭한다. 시대를 거듭하며,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쇠퇴하거나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었지만, 제조업이 남겨놓은 흔적과 기억들은 도시 곳곳에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산업의 흔적들을 '브라운 필즈'(brown fields)라 부른다. 물론 브라운 필즈는 산업의 흔적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산업화 시대에 남겨진 오염된 땅, 현대도시에 부적격 용도를 가진 사용하지 않는 땅을 의미한다. 이러한 브라운 필즈가 모두 자동적으로 산업유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역산업으로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했거나, '규모가 커서 공간 · 경관 차원의 기념성을 보유'했거나, 또한 '타 용도로 쉽게 대체하거나 해체하면 안 된다.'라는 지역(민)의 목시적 동의도 필요하다. 또 하나 더! 산업유산은 '선조들이 일했던 터전이며, 이 시설들로 인한 자신의 존재성을 인식하는 경우'다. 그래서 산업유산은 지나온 삶의 진정성이 강하게 스며있는 '진짜배기 생활유산'인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산업유산을 그냥 해체하여 버리기 보다는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하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노력, 즉 자원 미래화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다. 운이 좋으면 산업유산으로 인해 지역민들은 문화 향수를 누릴 수도 있고, 더 운이 좋으면 은 수 십만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이로 인해 지역이 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산업기를 거친 현대도시들은 산업유산을 '어떻게 다시 볼까?'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 동부창고





Ufa-fabrik



Tate\_modern

###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산업유산의 변신

산업유산에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있다. '재이용'(reuse)이다. 쉽게 말해서 다시 쓸 수 있다는 말이다. 근대화과정은 보통 전통적인 것에서 근대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과정으로 여긴다. 하지만 얼마든지 이 과정 속에서 전통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이 공존하고 상호적응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새것이 낡은 것을 바꿔치지 않으며, 새로운 것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낡은 것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충돌 없이 상호 적응하는 혼합현상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산업유산의 존재 이유는 이러한 진리에 꼭 들어맞는다. 아름다운 항구의 한쪽에서 공해물질을 내 뿜던 공장이 해양문화센터로 재활용되기도 하고, 각종 기계소음과 분진덩어리였던 공장이 호텔이나 예술촌으로 재활용되고, 노동쟁의와 폭발사고 등으로 시끄럽던 광산촌이 산업디자인센터로 변신을 한다. 또 거대한 불기둥을 내 뿜던 발전소가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변신하기도 하고, 제철소가 재미난 환경문화공원으로 재활용된다. 모든 것이 정반대로 만났다. 이들은 정지하지 않은 틀 속에서 제3의 공간들을 끊임없이 재창조하고 있다. 벽돌과 콘크리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식되고 색이 변하면서 남겨준 따뜻한 흔적들이 차가운 재질의 유리나 알루미늄 등과 만나 뿜어내는 매력은 참으로 묘하다.

산업유산의 가장 큰 강점은 '트렌디한 신기능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연 '문화'와 '예술'이 대표적이다. 문화와 예술이 산업유산과 만나는 결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문화와 예술을 펼치는 퍼포먼스 장소로 산업유산이 활용되는 일이다. 과연 이것뿐일까? 예술작품을 담고 전시하는 장소, 문화와 예술을 즐기기 위한 훈련과 연습의 공간, 예술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한 학습의 장, 문화예술인들이 머물며 표현하고 삶을 영위하는 공간, 산업시설 자체가 예술인 곳, 일정 기간 동안 문화예술의 축제장으로 변신하는 터 등. 상상이 아니라 실제 작동 중인 사례들을 떠올려 본 것이다. 이 뿐 아니다. 산업유산 자체의 변신이 주류이지만, 주변지역을 함께 연계·융합하여 포괄적 재생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이 경우 산업유산은 지역재생의 촉매제나 앵커 포인트로 사용된다.

### 도시 품격에 대한 바람

흔히들 이렇게 얘기한다. "오래된 공간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는 것은 높아진 경제 지수와 관계가 있다." 1인당 GDP 3만 달러가 코앞이다. 물론 허수도 있고, 높아진 경제 수준에 비해 더 커져 버린 우리 사회의 허상들이 산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높이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경제 지수 향상에 따라 눈높이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에 상응하는 오래된 공간들의 변신은 더욱 더 양·질적으로 다양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의 품격은 크고 강한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모여 있는 조화로움과 그들이 표출하는 정교함의 수준에 따라 판단되곤 한다. 여기서의 작은 것이란 규모보다는 기능의 작음, 즉 현대문명에 밀려 소외되고 쇠퇴된 공간을 의미한다.

'공간을 다시 바라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시대 가치의 변화를 뜻한다. '신개발'과 '재개발'만이 우리의 살길임을 주장하는 시대는 분명 지나가고 있다. 이젠 산업유산의 재이용은 도시 발전과정에 있어 '상식'이 되어야 한다. 산업유산은 오늘날의 국가산업과 경제 발전의 모태가 되었고, 지역생선의 핵심이자 우리 삶을 지탱해준 '산업 문화재'이다. 그냥 가만히 두거나 지키기만 하지는 것이 아니다. 맘에 들게 고쳐서 다른 용도로 적절하게 치환하여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혜택을 뿜아내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널 부러져 쇠퇴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는 많은 산업공간(시설)들을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 산업유산의 재이용은 어쩌다 한번 우연히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이젠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하고 또 '필수'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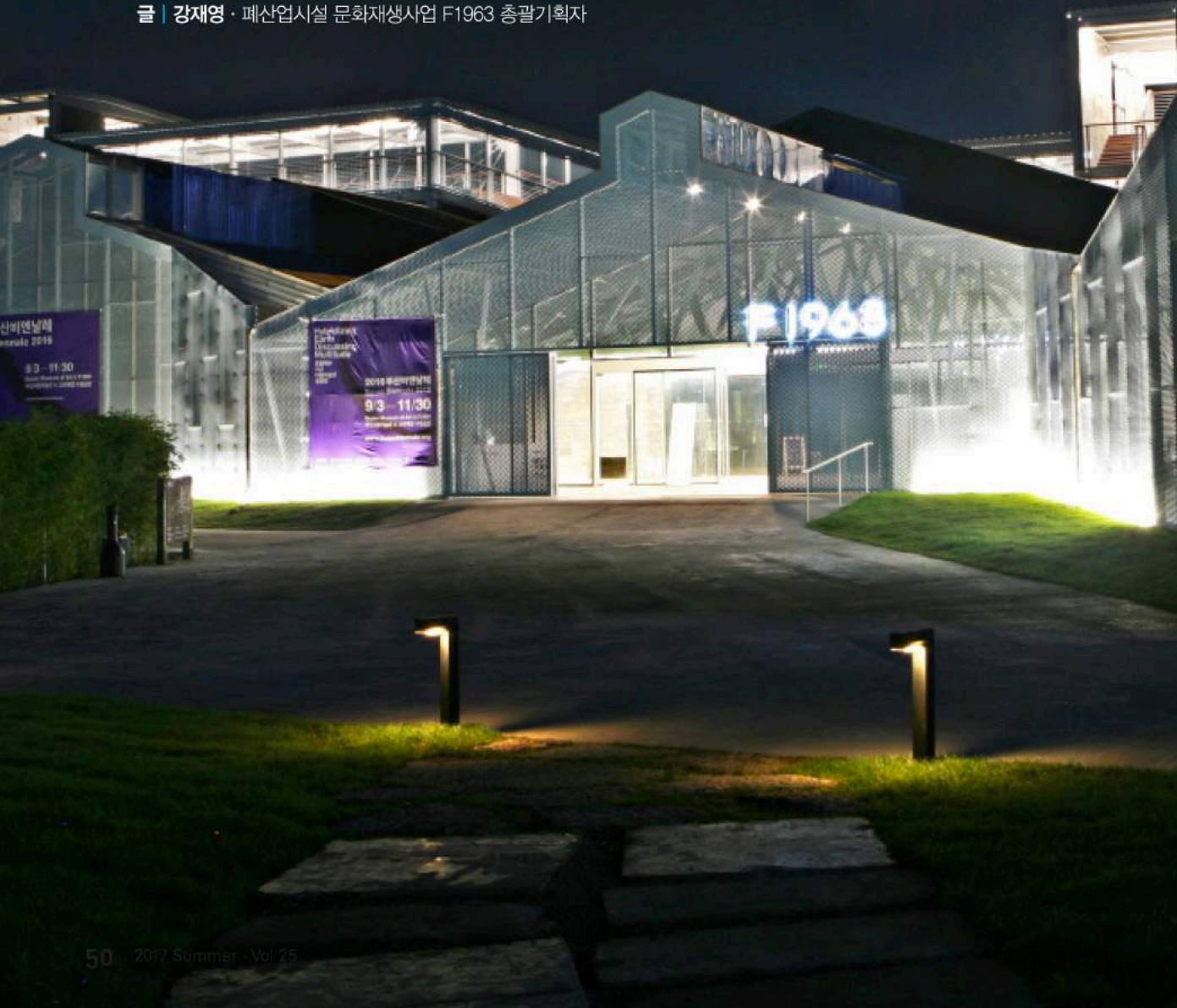
### 인용문헌

- 강동진, 2015, 공간의 변신, 공간을 다시 쓰다, Cheil 4월호, 2015, 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경향과 논점 분석, 국토계획 50권 2호.
- 강동진, 2014, "살아있는 산업유산"(도시재생 실천하러), 서울: 미세움.



# 잃어버린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공간, 문화공장 F1963

글 | 강재영 ·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F1963 총괄기획자



잃어버린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공간,  
문화공장 F1963



F1963(구 수영공장의 과거와 현재

옛 것을 허물고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형성되는 도시의 마천루. 한국의 대표적인 항만도시 부산은 해운대의 수많은 고층 건물의 화려함을 지니고 도시의 역동성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옛 정취를 간직한 추억의 공간은 차츰 사라져 가고 있다. 개발의 논리가 아닌 재생으로 도시환경을 만들고 활성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요즘 도시의 화두는 개발이 아닌 재생이다. 해운대를 바라보고 수영강변에 이웃한 수영구는 고층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긴 하지만, 비교적 덜 개발된 부산의 로컬리티를 간직한 곳이다. 오래되고 낡은 것이 주는 정감과 편안함을 요즘 사람들은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일까?

2016년 부산비엔날레를 계기로 만들어진 낡은 와이어공장(수영공장)은 재생건축의 모범이자, 부산의 가장 핫한 문화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의 거주민들이 늘어나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하기 어려워진 상황 속에 쓸모를 잃고 남겨진 공간이 사람과 문화로 채워지는 공간으로 변모한 것이다. 1963년 자본이 부족하던 시절, 나무 트러스를 세우고, 벽돌을 쌓아 올려 지어진 공장은 50년 넘게 가동되어 세계 각국에 와이어를 생산 수출하며 수많은 산업 역군들의 땀과 노력이 배어있는 곳이다. 도시의 거주민이 늘어나면서 공장은 도심 외곽으로 이동하고, 기업의 첫 공장이었기에 그대로 남겨 보존하다가 문화 예술과 결합, 친환경과 재생이라는 컨셉으로 재생건축이 시작되고,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공간으로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 한 권의 책과 같은 다채로운 공간

공장의 원형은 간직한 채 구조 보강과 냉난방과 단열 등을 보완하는 옛 것과 새 것을 조화시킨 재생건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천정의 오래된 트러스와 공장에서 사용하던 철판, 콘크리트 바닥 등은 벤치로, 테이블로, 정원의 조경석으로 재생되었다. 얇은 하늘빛은 님은 벽면 철재 파사드가 있는 입구로 들어오면 각각의 공간은 빛과 어둠, 트임과 막힘, 오래된 것과 새 것의 구조물들이 교차하며 분위기를 전환시킨다. 마치 한 권의 책과 같이 다채로운 공간이 연출된다. 세 개의 네모라는 독특한 공간 배치로 구성되어 있다.





F1963



2016 부산비엔날레 전시

첫 번째 네모 중정공간은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공간이다. 흠을 그리워하는 어린 아이들이 사랑놀기도 하고, 양쪽에 길게 조성된 정원의 꽃과 풀향이 공간 전체에 퍼진다. 무대에선 다양한 공연행사가 펼쳐진다. 두 번째 네모는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휴게공간이다. 공장 건립 당시의 발전기와 허물어진 담장이 그대로 남겨져 있고 와이어 공장에서 돌아가던 보빈이 설치미술과 어우러진 곳에서 커피도 마시고, 현장에서 직접 가공 생산한 맥주도 마신다. 세 번째 네모는 문화 예술의 공간이다. 2016년에는 부산비엔날레 주채전을 펼쳤던 곳인데, 이곳이 올해 리노베이션 과정을 거쳐 서점과 도서관, 폐산업시설문화재생사업 구간의 전시, 공연장으로 구성된다.

### 사람과 문화 중심의 거점

폐산업시설을 재생시켜 문화시설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문화재생사업. 기계 중심의 공장에서 친환경과 재생을 통해 다채로운 문화예술의 장이 펼쳐지는 문화공장으로 변신시켜 주위의 거주민들은 물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과 문화 중심으로의 변신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전국의 수많은 폐산업시설들이 생겨나고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문화로 채워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부산만의 콘텐츠는 무엇이고, F1963만의 유니크한 공간을 어떻게 창출하고, 어떤 방향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인가?

2016년 부산비엔날레를 통해 F1963은 1차로 가능성을 진단한 곳이다. 폐공장에서 꽃처럼 피어난 예술 작품들은 국내는 물론 세계 문화예술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이목을 집중시킨 곳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장이 문화시설로 변모되는 사례는 많다. 폐광단지, 발전소, 방직공장 등 쓸모를 다한 공장들이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시민들과 즐기는 문화공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런던의 테이트모던미술관, 베이징의 798예술단지 등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문화재생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F1963



부산즉흥춤축제 중정

곳들이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작은 소도시에도 무수한 복합문화공간들이 있지만, 이런 대표적인 공간은 도시의 역량과 힘이 작용한다. 런던, 베이징이라는 상징 도시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즐기는 명소로 자리 잡은 것이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최고의 항만도시이다. 350만의 인구, 교통, 산업, 관광 등의 도시 인프라가 국제적인 수준이며, 무엇보다 바다라는 천혜의 자원을 보유한 아름다운 도시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인프라를 가진 부산 안에 부산의 로컬리티를 강조한 유니크한 F1963의 공간을 만들고, 부산만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국제적인 문화명소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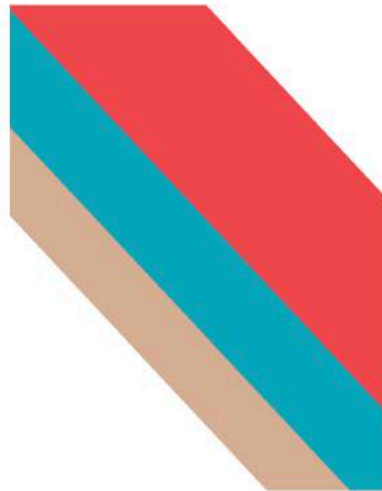
### 매력적인 문화공간, 사람이 꽃이다!

이제 문화재생사업의 콘텐츠 연구를 시작하며 F1963에서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른 미술관/공연장과의 차별화 모색이 가장 주안점이다. 개방성과 혼용성을 특성으로 한 부산 문화를 연구하고, 그것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이다. 또한 전시, 공연, 교육,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사치스럽지 않으면서 품격 있는 공간, 보다 가깝고 낮게 열린 공간으로,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즐기는 공간으로 가꿔 나갈 것이다. 올해는 문화재생공간의 공간 리노베이션과 사전 파일럿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국제적 교류는 물론, 장르간의 융·복합을 통한 다양하고 실험적인 무대와 전시들이 이어질 것이다. F1963 문화재생 사업은 민관 협력의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 기업이 협력해서 만드는 새로운 실험과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은 찾아오고 즐기고 만드는 사람들이 행복한 공간이다. 매력적인 문화공간은 사람이 꽃이다.



# 부산의 생활문화 정책현황과 과제

글 | 서영수 ·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



## □ 생활문화의 시작 □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회자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생활문화'이다. 생활문화는 '생활'이라는 단어와 '문화'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문화'라는 단어는 그 의미와 개념이 워낙 넓어서 협의의 의미, 광의의 의미로 구분하며 온갖 사회현상에 문화라는 말을 덧붙여 사용하고 있는데다 '생활'이라는 단어도 그에 못지않은 의미의 확장성과 일반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 둘의 조합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경험하는 모든 문화적 활동을 담아내는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와 궤를 같이 한다.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기존 국가주도의 문화예술정책과 행정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분권하는 기초적인 법안으로 여기에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에 대한 정책용어로서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문화'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문화의 키워드 중 하나인 '생활문화'는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일컫는다. 앞서 2013년에 제정된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 개념과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을 통한 예산과 행정지원의 체계를 전국적으로 갖추어서 생활문화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015 생활문화예술축제 <춤출까예>, <나도예술가>

□ 생활문화의 전개 □

생활문화라는 것은 법제도가 있기 전에 이미 우리 곁에 아주 친숙하게 있었던 활동들이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시민들은 스스로 좋아하는 문화예술 활동들(서예, 도자기, 사진, 그림, 합창, 풍물, 기악, 무용, 연극, 문학 등)을 선생(싸부)님을 모시고 배우고 있었다. 또한 지역 문화원, 농협, 노동조합,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교육 강좌와 각종 민관 프로그램을 수강을 통해 만들어진 시민 동아리들도 부지기수로 많아 그야말로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생활문화가 대중적으로 활성화되었다.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취미와 여가활동 차원에서 문화예술동아리를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고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여 스스로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영위하는 삶은 풀뿌리 시민문화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고 아래로부터의 문화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소중한 자양분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생활문화는 심화되는 고령화 시대에 중장년·노년층의 사회활동에서 문화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각종 취미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긍정적 효과와 건강의료 관련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발적 동아리 활동들이 분산적·파편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정한 성과를 축적하여 사회문화적 자산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소모임 활동의 소멸과 생성을 반복하는 다소 소모적인 양태로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경기도 성남시 '성남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의 사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시민참여 문화예술 활동의 지속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며 관의 지원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생활문화영역에서의 민관협치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문화재단은 2015년부터 생활문화 활성화사업을 시작했는데 첫해에는 생활문화동아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약 580여 개 동아리의 활동현황을 파악하였고, 공모사업을 통해 100여개 동아리를 선발하여 소액의 활동기금을 지원하였으며, 전체 동아리들



두송생활문화센터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이 참여하는 '취미의 재발견', '춤출까예', '생활문화예술축제', '지축을 올려라' 4개의 기획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6년부터는 동아리 대상의 직접지원을 지양하고 지역별·장르별 생활문화동아리를 조직하는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여 11개 지역, 6개 장르 생활문화연합회를 창립하였으며 총 14회의 지역별·장르별 생활문화예술제를 개최하였다. 2017년에는 5개 지역의 생활문화연합회 창립과 20회 이상의 생활문화예술제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별·장르별 생활문화연합회 회장단, 운영위원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기 회의체계, 역량강화 워크샵,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와 각 구(군)의 협조를 통해 각 지역별로 거점형·지역형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지역에 총 14개의 생활문화센터가 운영 중이거나 조성 중에 있으며, 부산광역시 거점 생활문화센터로 원도심의 청자빌딩을 리모델링하여 2017년 12월 개관 예정으로 있다.

재단에서는 지속가능한 생활문화생태계 조성을 전략적인 목표로 하여 지역별·장르별 생활문화연합회 구성(조직), 지역별·장르별 생활문화예술제 개최(사업), 지역별 생활문화센터 설립(공간)의 교집합을 통한 부산지역 생활문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계에 있다.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은 철저하게 시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지역성, 자립성, 협동성을 원칙으로 하고 재단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간접적인 예산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과 생활문화연합회 스스로 사업내용과 예산을 집행하고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재단의 지원으로 인해 공동체 활동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자생력이 약해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생활문화연합회의 수평적인 소통과 의사결정 구조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생활문화의 활성화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화토양을 건강하게 하고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풀뿌리 시민문화의 기초가 된다.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창작을 중요시하는 전문 예술인과 시간적·경제적 이유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시민들 사이에서 그 간격을 줄이는 매개 역할을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분들은 전문예술인들의 지도와 예술적 성취를 가까이 수용하며 일반 시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생활속에서 제공하고 있다.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여 그 저변이 넓어지면 일반시민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전문예술인들의 활동기반과 예술시장도 더욱 강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 생활문화의 과제 □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생활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넘어야 할 과제들은 많지만 이제 곧 시작이 반이라고 지역문화예술계가 중지를 모아 한걸음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생활문화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축인 조직, 사업, 공간의 세 분야가 서로 연계되고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첫째, 조직 측면에서 부산지역의 생활문화연합회\*는 현재 지역 및 장르단위 600여 개 동아리가 참여하고 있는데 향후 연합회 조직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논의구조와 동아리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정례적인 운영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 동안 많은 동아리들이 익숙해 있던 개별 활동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소통과 협업을 중시하는 조직운영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나 향후 소규모 동아리 단위 활동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별·장르별 활동으로 그 폭을 넓히고자 하는 욕구는 점차 증가할 것이다. 동시에 생활문화연합회 활동을 조력할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전문예술인의 참여와 역할을 통해 동아리 활동의 질을 높여 나가야 활동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업 측면에서 현재는 지역별·장르별 생활문화예술제 개최, 전국생활문화제 참가에 머물고 있지만 향후 생활문화연합회 워크샵, 교육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타 지역 교류행사, 생활문화공동체사업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생활문화연합회 구성: 지역별 13개, 장르별 7개 연합회

지역

사하구, 남구, 금정구, 북구, 동래구, 사상구, 부산진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수영구, 강서구

장르

국악, 무용, 밴드, 연극, 기악, 미술, 문학

부산지역 분야별 동아리 582개 (시민 생활문화 동아리 전수조사)



하고 있다. 많은 생활문화동아리들이 정기적인 연습 및 발표회, 지역축제 참가, 봉사활동 등으로 생업과 더불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고 사업의 근간이 되는 개별 동아리 활동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하지만 개별 동아리의 범주를 넘어서는 생활문화연합회는 일 년에 한번 개최되는 생활문화예술제가 개별 동아리 발표회의 나열이 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협업을 통해 기획역량을 높이는 것을 당면과제로 안고 있다.

셋째, 공간 측면에서 현재의 생활문화센터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생활문화연합회와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고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활문화센터의 조성이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성 공사와 운영을 담당하면서 생활문화연합회의 거점 공간 역할보다는 관성적으로 구청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공간 역할에 머물고 있어 생활문화센터 역할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각 생활문화동아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조사와 향후 필요한 거점 공간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기존의 공간자원을 상호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져야 한다. 생활문화동아리들이 보유한 공간과 재능, 지역자원에 대한 정보들이 확장된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자원으로 축적되고 공유 자원화한다면 지역사회를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다.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는 시민들의 문화기본권을 스스로 찾아가는 차원에서 일상에서의 문화향유 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 활동의 폭을 확대하는데 튼튼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생활문화를 통한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 확대는 전문예술인들의 예술적 성취와 결과물을 공유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욕구가 높아지게 만들고 그 결과로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고리가 강화되어 지역의 예술시장이 확대됨으로써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1. 생활문화 시민대토론회 2. 사하구 생활문화예술제



3. 기악분야 생활문화예술제 4. 해운대구 생활문화예술제



#부산문화재단  
#거리예술&아트마켓 (AREA51)



#da-onn

#부산문화재단 #퀴어  
#페미니즘 #피부색 #신분  
#2017 문화다양성주간 개막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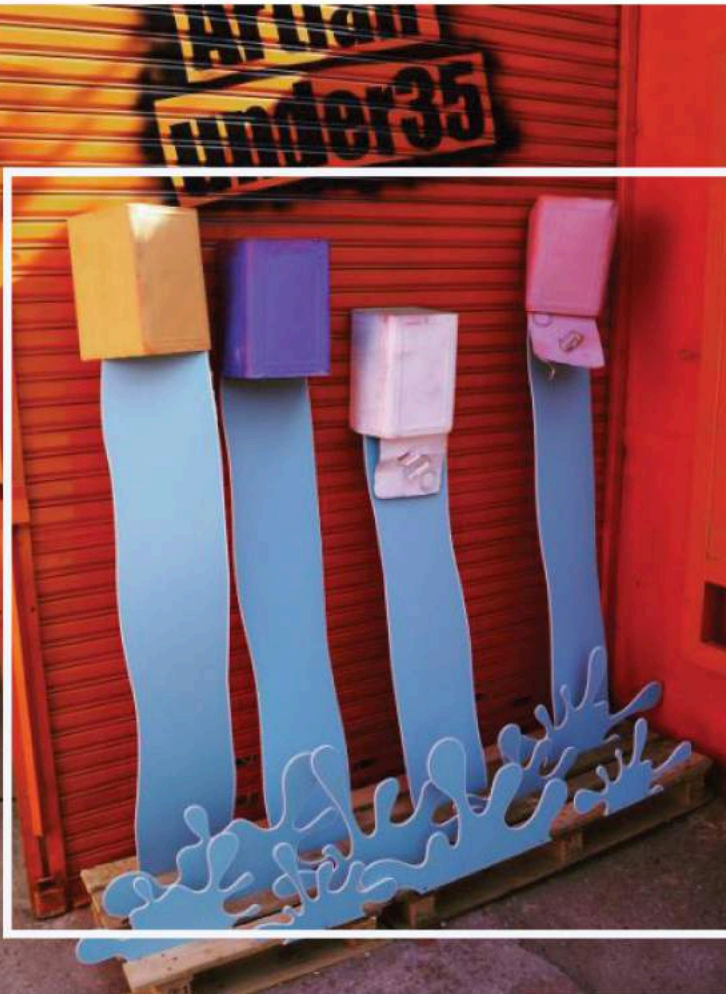
그 무엇도 다양성 일지언정 인간의 존엄성 앞에서  
틀린 것은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다.



#kong\_star\_official



#southkorea #busan  
#부산문화재단 #under35  
#artfair #신기산업 #문앞 #장식들 #기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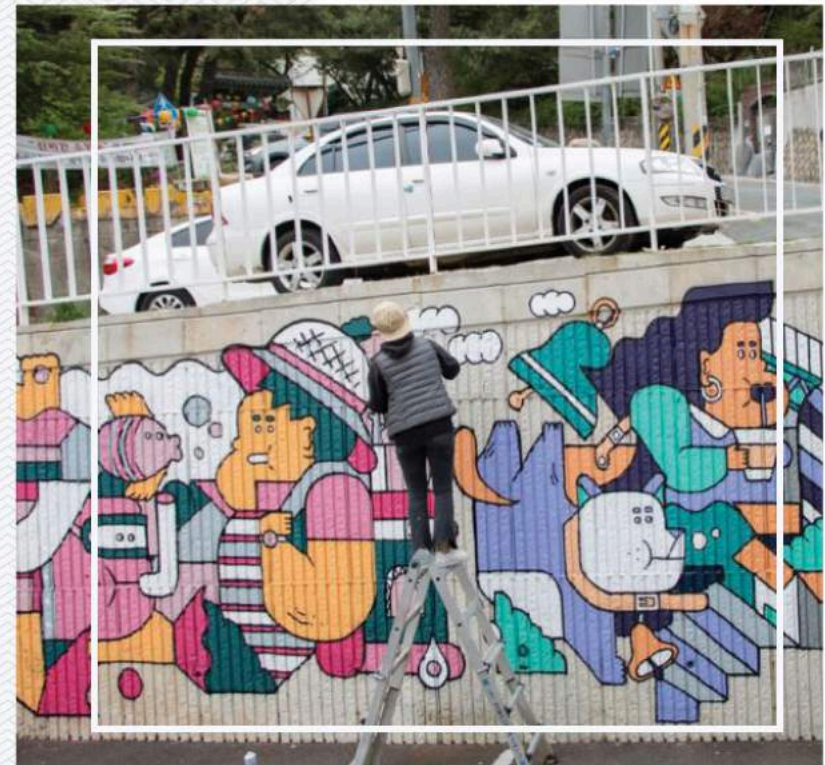


#expedition73299

#street #streetart #urban #urbanart #부산문화재단 #아트페어  
#신기산업 #live #livepainting



Live painting coming soon!



#seenaeme







#김정주

#부산문화재단 #서면 #거리예술  
#놀이마루

놀이마루 담 카페거리 설치 완료  
맘껏 찍으세요^^

#부산문화재단 #감만창의문화존 #오픈스튜디오 #행사 #5월26일 #입주단체  
#한스쇼콰이어 #점심 #푸드트럭 #맛있담



#elling\_jan\_11



# 속살을 보다

68  
# 이론과 실천의 조화 - 정봉석, 「부산 연극의 미학」 황선열

72  
# 지금도 여전히 민중미술 박은지

76  
# 지금 여기서 옛 정취에 취하다 퍼포먼스 〈Modern Times〉 김문홍

80  
# 와인에 재즈가 빠졌다고? 김상화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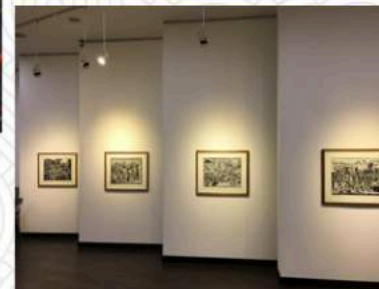
72



72



80



72



## 이론과 실천의 조화 - 정봉석, 『부산 연극의 미학』(해성)

글 | 황선열 · 한국작가회의 회원, 신생인문학연구소 소장

이 책의 제목을 또박또박 끊어 읽어보자. 왜 끊어서 읽어보느냐 하면, 이 책은 철저히 부산이라는 지역에 국한하고 있으며, 연극이라는 장르에 한정하고 있으며, 부산 지역 연극의 미학을 촘촘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 세 가지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다. 그래서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분명하다. 책 제목 그대로 부산 지역의 연극이 얼마나 미적으로 성숙되어 있으며, 미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 연극의 중심지, 부산

먼저, '부산'이라는 말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이 책은 부산이라는 지역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출판사까지도 지역 출판사다. 지금까지 저자가 상재한 저서들이 대부분 지역출판사에서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번 책은 '부산'이라는 지역의 의미가 돈뽀새김처럼 제시되어 있어서 지역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것은 더 의미 있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든다. '부산'의 지역성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잘 드러낸 부분은 국제연극제를 부산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글이다. 이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자의 '부산'에 대한 애정은 그가 태어나고 자랐으며, 지금도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묵은 정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저자는 '부산'이라는 지역의 조건들을 지역의 특성과 문화의 기능, 그에 따른 연극계의 주류 등을 제시하면서 부산이 연극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런 주장은 부산 연극의 뿌리로부터 시작하는 오랜 경험과 실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사실 지역 문화의 특화 사업은 세계적인 관광 자원을 만드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저자의 이런 제안은 '부산'이라는 지역을 넘어서 국제적인 문화 사업에 대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리장(麗江)은 옥룡설산이라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장예모 감독의 인상여강(印象麗江)을 무대에 올려서 관광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다. 만년설을 이고 있는 산을 배경으로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무대는 그야말로 장관이다. 옥룡설산의 신화를 바탕으로 설산에 살았던 각 부족의 전통을 무대 위에 재현해낸다. 자연 자체가 하나의 무대이고, 무대가 곧 자연이다. 자연환경을 이용한 기획은 부산 연극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가는 제안이라 할 수 있다. 해운대나 광안리를 무대로 항구의 신화를 재현해낸다면, 부산국제연극제의 위상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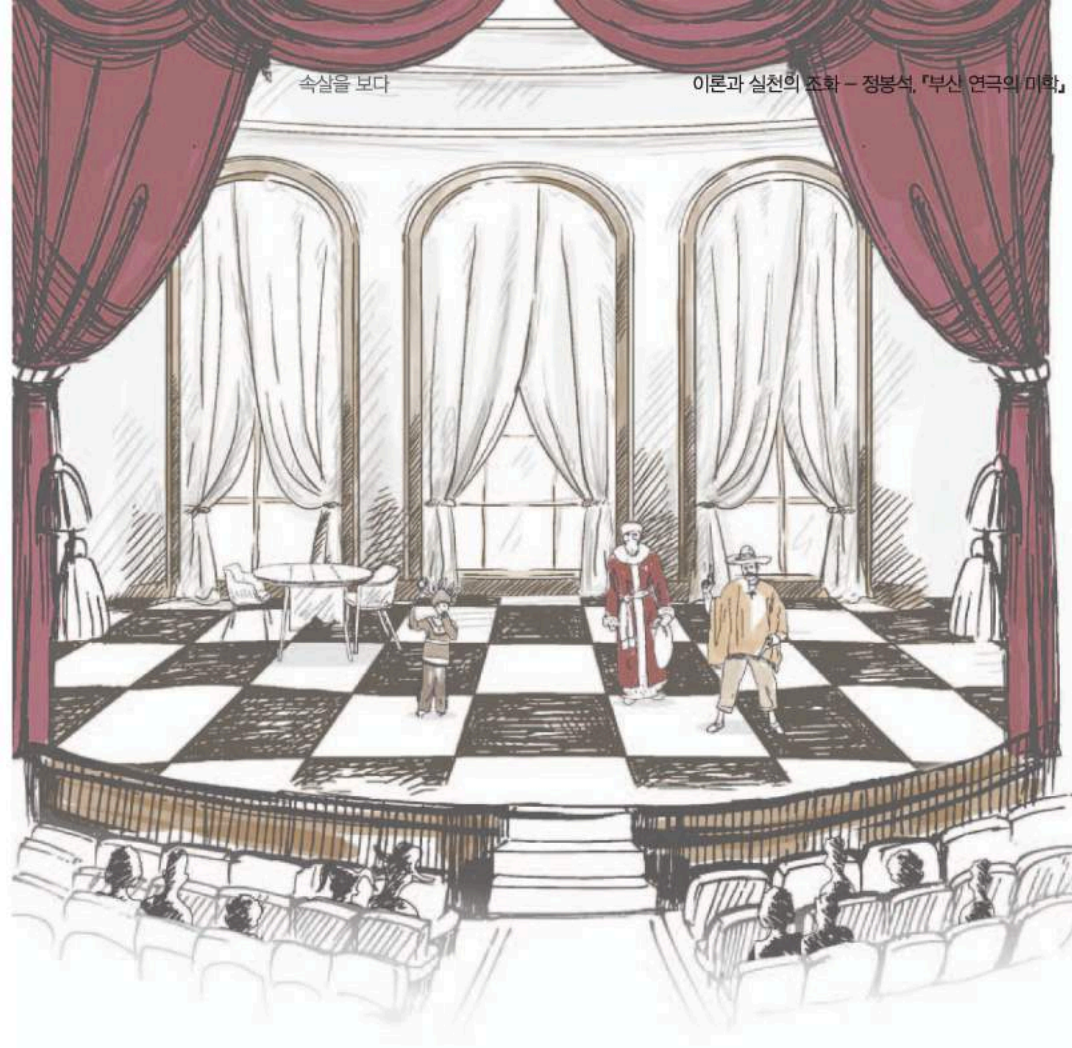
### 부산 연극의 비평

다음은 '연극'이라는 말을 생각해보자. 저자는 부산 연극의 뿌리로부터 최근의 경향까지를 꼬치를 꿰듯이 한 줄에 꿰고 있다. 해방 후 부산의 연극뿐만 아니라, 최근의 연극까지 다루고 있다. 오랫동안 '부산'의 연극 현장과 함께 한 그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80년대 중반 이전 부산의 연극은 자료 연구를 통해서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면, 80년대 중반 이후는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천 비평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저자의 연극 비평은 단순한 감상의 수준을 넘어서 정치한 이론을 겸비한 학술 연구의 관점으로 나아가게 된다. 저자의 연극 비평 관점은 전통연희를 재구성하는 방법의 모색에 있다. 전통연희 양식에는 "집단적 신명과 성스러운 정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제의와 연극, 그리고 놀이의 요소가 살아"있는데, 그 중에서 굿은 집단 신명을 잘 보여주는 양식이다. 특히 동래야류와 같은 탈놀음의 전통이 있는 부산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는 한국 연극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현대인들의 잃어버린 집단의 신명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굿과 제의는 말 그대로 집단의 신명을 반영한다. 굿은 천지신명에게 올리는 경건한 기도이다. 이러한 전통극의 형식은 한국 연극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전통연희의 계승은 한국 연극이 지향해야 할 궁극의 지점이다.



저자는 영화의 상업성에 밀려나는 '연극'을 안타까워하면서 '연극'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근대 연극이 배제시켰던 연극의 원형, 바로 그 노래와 춤을 대서 연극의 중심으로 소환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전통의 리듬을 살리는 길이 연극의 원형이다. 노래와 춤, 그리고 대사가 한꺼번에 어우러진 상태가 연극의 원형이다. 전통 리듬인 율러는 우주와 생명의 근원으로 나오는 것이다. 율러의 소환은 근대극 이후로 잃어버린 연극의 원형을 찾는 일이다. 이것은 연극의 미학을 찾아가는 근본 작업이다. 연극의 원형을 찾아가는 것은 우주와 생명의 조화로움, 예술의 근원을 찾아가는 길 이기다. 신명은 리듬의 조화로움이 닿는 궁극의 지점이다. 신명의 회복이 아마로 우리 연극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의 복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연희양식의 내적 자장을 현대극과 접목하는 것이다.

비평의 부재는 현장 연극인들의 긴장과 그에 따른 노력이 부족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연극 비평의 활성화는 중요하다. 저자는 1992년 「우리극연구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연극 평론을 했으니 연극판에서 잔뼈가 굵은 현장 비평가라 할 수 있다. 저자는 현장 비평가들이 놓치기 쉬운 이론까지 겸비하고 있다. 「부산 창작극의 흐름」을 밝힌 평문을 읽어보면 이론과 실천을 통한 연극 비평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산 연극의 과거와 현재를 잘 보여주는 극단 가마골에 대한 위상을 점검한 글은 '연극'만을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극단 가마골의 역사는 부산 연극의 역사이고, 이에 대한 연구는 '연극'만을 위해 살았던 그들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부터 시작한다. 부산의 '연극'은 문화계의 게릴라라 불리는 이윤택과 김광보 같은 연극인의 노력이 있었으며, 이들의 뒤를 잇는 이윤주, 박현철과 같은 인물이 부산 연극을 새로운 국면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부산은 전통연희의 방식을 고스란히 계승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연극'의 중심지이고, 그 중심지에서 '연극'만을 위해 살아가는 '연극인'들이 있다. 이를 통해서 저자는 부산 지역의 '연극'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부산의 '연극'을 통해서 연극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다.



## 부산의 연극, 그리고 연극의 미학

끝으로 '미학'이라는 말을 생각해보자. 이 책은 대중성과 예술성 사이에서 끊임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연극을 미학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연극과 영화의 차이를 밝히면서 연극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그 예는 <안데르센>을 분석한 글에서 알 수 있다. <안데르센>은 제목부터가 세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탈놀음과 꼭두각시놀음과 영등놀음의 미학으로 전환한다면, 동양의 연극 미학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연극과 관련한 다양한 예술 용어를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독자들에게 연극 미학의 매력에 빠져들게 한다. 연극에 생소한 독자들도 이 책을 통해서 연극의 미학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미임 예술을 설명하는 것이나, 게스투스(gestus)에 의한 연기술의 활용에 대한 해설은 연극 미학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부드러운 문체는 이 책의 중요한 미덕이다. 김도웅의 연극이야기를 분석하면서 저자는 사진 예술이 갖는 전문 용어들을 끌어오고 있는데, 그 용어들이 글 속에 녹아들어서 사진 예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연극과 관련한 저자의 미적 탐색은 곳곳에 연결고리가 되어서 문화현상 전반을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

저자는 부산에서 연극을 만났고, 부산에서 연극 평론을 했고, 부산에서 연극 미학을 연구했다. 1986년 용두산 공원의 총계참에 있었던 가마골 소극장에 대한 회고의 글을 읽으면 저자는 처음부터 부산의 연극인이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저자는 연극의 현장에서 연극의 이론을 통해서 부산의 연극을 미학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부산 연극의 비평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 이 책의 곳곳에서 저자는 제대로 된 연극평론가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독자들은 부산에는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연극평론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저자는 말한다. "지역적 특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주제와 형식의 측면에서 시립극단의 품격을 자부할 수 있는 작품성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부산의 연극이고, 가장 분명한 연극의 미학이라고.



# 지금도 여전히 민중미술

글 | 박은지 · 문화예술기획단체 LaVie 디렉터  
 사진제공 | 민주항쟁30년부산사업추진위원회

〈민중미술 2017〉展은 6월 민주항쟁 30년 기념사업으로 진행되며 '노동자는 노동자다!' 와 '가야하네!' 전시로 다시 구분 된다. 주최 측이 표명한 대로 민주항쟁을 '기념한다' 함은 30년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현재로 끌어들이고 기억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월의 노동자 대투쟁, 이 두 사건은 시간적으로 과거와 연관된 것이지만 이 두 전시를 마주하는 지금의 우리를 과거의 것으로 치부하고 관망할 수만은 없는 감성들을 안으로부터 이끌어낸다.



신학철\_유월항쟁도\_천에 목판화\_1999



## 6월민주항쟁 30년 기념 민중미술 2017

### 민중미술 소장작품전 ① 노동자는 노동자다!

2017. 6. 9(금) ~ 8. 27(일), 민주공원 기획전시실  
 내용 :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환기하며 노동의 역사와 가치를 되짚어봄

### 민중미술 2017 - 민중미술 소장작품전 ② 가야하네!

일시 : 2017. 6. 9(금) - 7. 9(일), 부산가톨릭센터 대청갤러리  
 내용 : 한국 역사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갖가지 사건, 사상, 생활의 결과 켜를 가능해봄

## 〈민중미술 2017〉展의 수행적 정체

민중미술(Minjung Art)은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들로부터 발현된 것으로 역사적 가치를 가진 한국의 고유한 미술사조다. 비인도적이고 비민주적인 시대를 경험하고 살아낸 작가들을 통해 나타나게 된 미술, 그것이 민중미술이다. 그러나 모든 역사와 역사적 가치와 같이 민중미술의 역사적 가치는 후대에 전달 될 때 비로소 그 의미와 중요성을 획득하게 된다.

일상의 한 노인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이종구의 〈오지리보건진료소 문씨〉 작업부터 6월 민주항쟁을 담아낸 신학철의 〈유월항쟁도〉까지 '민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미술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장식적 특성이나 도구적 가치와는 멀리 떨어져있다. 삶에 대한 현실인식이자 현실고발의 매개체인 민중미술은 진실로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직접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기술하고 또한 논술한다. 또한 시기적으로는 현실인식을 이념으로 내세우며 미술의 소통기능을 회복하고자 했던 '현실과 발언'이 창립되었던 1980년을 기점으로 하는 민중미술, 그러나 〈민중미술 2017〉展은 〈가야하네!〉展에 1980년대 홍성담 작업부터 2015년 김병택 작업까지 〈노동자는 노동자다!〉展에 1989년 남궁산의 작업부터 2017년 장소익의 작업까지를 담아내면서 민중미술을 실천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30년이 지난 오늘, 군인의 총칼무력에 의한 희생은 가슴위의 노란 리본으로, 노동자의 인권유린과 탄압은 비정규직의 불안으로 그 양태만 달리 할 뿐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요청하고 있지 않는가. 현재적 관점에서 민중미술의 의미를 온몸으로 사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민중미술 2017〉展의 수행적 정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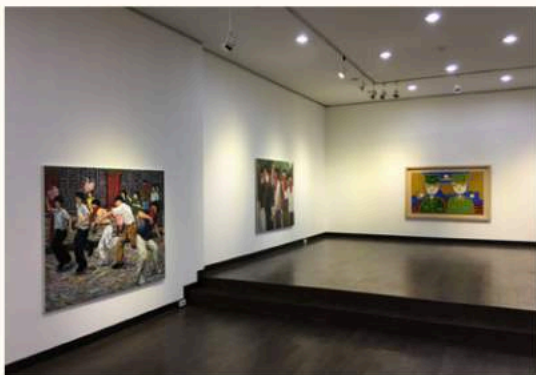
**삶-정치적 공간으로서 민주공원과 가톨릭센터**

삶의 공간은 인간의 생활양식과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는 전시와 관련하여 작품들이 시연되는 두 공간, '민주공원' 과 '부산 가톨릭센터'에 대해 함께 고찰해야 한다. 특별히 이 두 공간을 '전시'라는 맥락보다 '삶'이라는 맥락과 관련하여 고찰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87년 6월 부산 가톨릭센터에서 진행된 농성은 '가톨릭센터로 가자!' 라는 구호와 함께 특정 종교적 장을 넘어 삶의 투쟁의 공간으로서의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민주공원 역시 부마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등의 민주화 운동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공원으로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세월호 참사 기억 프로젝트 2.5 들숨 날숨>, <신고리 5.6기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展 등 민주공원과 가톨릭센터의 전시 공간 역시 <민중미술 2017년> 展과 같이 수행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중미술이 그러했듯이 더욱 우리의 삶이 가까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고 그 물리적인 가까움이 심리적인 가까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공간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일반 사람들이 모이고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민주주의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 가톨릭 센터와 민주공원은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자 사람들이 스스로 다가오며 서로를 만나고 이를 통해 비로소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삶-정치적 공간으로 위치해 왔으며 또한 전시 외에 사람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지는 많은 문화 행사를 통해 이러한 삶-정치적 공간을 실천하고자 한다.



홍성담\_가자 도청으로\_고무판화\_1990



부산가톨릭센터 전시



장소익(나무뒤움직임연구소)\_제나가리라\_반경 5m 이내 설치 및 퍼포먼스\_2017



남궁산\_우리 노동자\_목판채색\_1991

**현실과 발언 그리고 남겨진 문제**

1980년대의 민중미술이 요청했던 '현실'과 '발언' 이 격언은 지금-여기의 시각예술의 장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또한 중요한 사안이다. 여전히 우리는 삶과 멀어져 있는 예술에 대해 비판하고 삶 가운데에서 예술을, 예술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해 고민한다. 미술이 우리 삶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사회학(예술사회학)의 범주로 옮겨진다. 오늘의 미술이 미래의 오늘을 조금 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 것이라는 확신, 미술이 한 번 더 웃을 일이 있는 세상으로 만들 것이라는 열정과 신념. 이는 적어도 우리의 미술의 역사에서 민중미술로부터 출발한다. 지금도 여전히 그 실천적 관점에서 민중미술은 시도되고 기획되고 있으며 그 범주는 더욱 확장되어 질 수 있다.

<민중미술 2017> 展 은 '민주주의 심장, 다시 뛰는 부산'이라는 문구와 함께 시작한다. '다시' 라는 낱말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민주주의 투쟁의 중심에 있었던 가톨릭센터,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자 건립된 민주공원. 나는 이 낱말의 의미가 그저 '기념하다'에 한정되지 않길 바란다. 공간의 의미는 그 공간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다시'의 의미가 진정으로 획득되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여기'를 철저히 사유하고 민중미술을 끊임 없이 현재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와 실천이 요청되어야만 한다. '지금도 여전히 민중미술' 의 실천들은 끊임없이 다시 현재로 끌어들이으로써 역사를 망각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며 삶을 살아내기 위한 수행이다.





## 지금 여기서 옛 정취에 취하다 퍼포먼스 <Modern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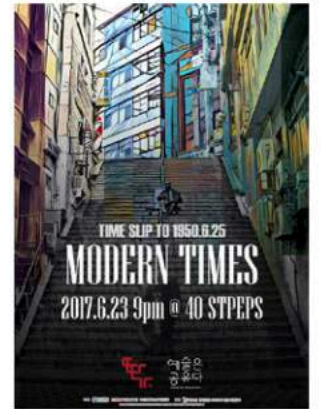
글 | 김문홍 · 희곡작가, 연극평론가, 현 부산공연사연구소 소장

### 관습적 틀을 벗어났다

연극의 3요소는 희곡, 배우, 관객이다. 4요소일 경우에는 무대(공간)가 포함된다. 이것은 곧 연극은 공연장소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배우와 관객만 존재한다면 어디서든 상관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연극은 반드시 극장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대 위의 배우와 객석의 관객들 사이에 정서적 유대감만 형성된다면 언제 어디에서도 공연이 가능하다. 관객이 무대 위의 극적현상에 동화만 된다면, 또한 무대 위의 배우가 극적 상황에 감정이입만 된다면 어디서 어떻게 공연하든 무슨 상관이라.

2017년 6월 23일 오후 8시 30분 무렵의 중앙동 40계단. 이제 조금 있으면 이곳에서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딱히 관객은 정해지지 않는다. 관극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곳을 서성이는 사람이건 지나치는 사람이건 그 어느 누구나 관객이 될 수 있다. 관객이 될 시민들은 맥을 놓은 채 다소 흐트러져 있어도 되지만, 퍼포먼스에 참여할 의도된 배우들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분장에 여념이 없다. 손남숙, 정애경, 박정아, 전상미 등의 여자 배우들은 1950년대의 헤어스타일, 다소 촌스런 디자인과 색깔의 의상을 입은 채 분장에 여념이 없고, 김륜호, 이동욱 등의 남자 배우들 역시 손수레와 인력거를 끌며 워킹업을 하고 있다.

이들을 총지휘하는 극단 동녘의 연출가 오치운과 심문섭, 그리고 극단 미지 씨어터의 연출가인 양지웅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그들 세 사람은 출연 배우들과는 사전에 무언의 약속을 했기에 믿음이 가지만, 의도되지 않은 관객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관습적 틀을 벗어난 퍼포먼스이기에 어떤 상황과 행동이 그들의 혁명적 시도를 가로막을지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속살을 보다



### 옛 정취가 지금 이곳으로 스며들다

9시가 되자 연극적 난장이 스멀거리기 시작한다. 드디어 시작이다. 40계단 중턱에서 색소폰의 구슬픈 멜로디가 밤의 공기를 뒤흔들며 다가온다. 피란 수도 무렵의 옷차림을 한 여배우들이 '오빠는 풍각쟁이'를 부르며 어설픈 유혹의 몸짓을 하자, 계단 아래에서도 느닷없이 '지금 이곳'의 시간 속으로 피란 수도를 비롯한 근현대사적인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삼시간에 2017년 6월의 풍경이 피란수도의 40계단의 옛 정취로 술렁이기 시작한다.

남자배우 김윤호가 큰 소리로 '아이스케키'를 외치며 '뽕튀기 기계'앞으로 다가와 시범을 보인다. 쌀이나 옥수수 알갱이를 집어넣고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몇 배로 부풀린다'고 말하며 기계를 조작하는 시늉을 해 보이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둘러선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귀를 막는다. 고등어를 실은 손수레가 지나가고 배우 이동욱이 이끄는 인력거에 치마저고리 입은 승객들이 타고 앉아 해픈 웃음을 날리며 지나간다. 조금 있으려니 귀에 익은 팝송의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40계단 위에서 거대한 풍선들이 굴러 내려온다. 잠재적 관객이 되어 있는 시민들이 저마다 풍선을 허공 위로 쳐 올리느라 안간힘을 쓴다. 조금 전에 배우 김윤호가 뽕튀기 기계 속으로 집어넣었던 곡식 알갱이가 순식간에 부풀려져 거대한 풍선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계단 중턱에서 촌스런 아가씨들이 노래를 부르며 시끄럽게 웃어대자 그 옆 커피숍의 창문이 열리며 아주머니(정애경 분)가 한바탕 욱을 퍼붓는다. 그 옆, 지금 이곳을 살고 있는 여자 손님들이 사람 좋게 웃으며 관객을 자처하기도 한다.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시킨 것도 아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부추긴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중앙동 40계단 부근에 모인 시민들은 관객의 몫을 단단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 날의 공연은 30분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스스로 참여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비록 이웃과 담을 쌓은 채 이기적인 일상을 영위하고 있지만, 나 아니면 모두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적의를 품은 채 관계를 맺고 사는 '지금 이곳'의 메마른 감정의 시민들이었지만, 오늘의 이곳으로 스며든 옛 정취에 흠뻑 취해 사람 사는 풍경에 젖는 행복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번의 퍼포먼스는 그 어떤 공연보다도 성공적이었다.

지금 여기서 옛 정취에 취하다 퍼포먼스 (Modern Times)

### Time Slip 퍼포먼스의 실험적 의도

이번 퍼포먼스는 지난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들 간 기획 시행된 부산시 주최의 '피란수도 부산야행'의 한 분야로 이루어진 연극적 난장이었지만, 그 어떤 연극보다도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참신한 공연이었다. 'Time Slip'이란 기계(타임머신)를 이용해 과거나 미래로 시간을 마음대로 여행하는 것과는 다르다. 의도하지 않게 과거나 미래로 가는 것을 뜻한다. 즉, 시간이 미끄러진다(slip), 혹은 시간을 타고 미끄러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17년 지금 이곳의 시간 속으로 피란 수도의 정취를 불러들이거나, 아니면 옛 풍경 속으로 지금 이곳의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다. 이번 퍼포먼스는 두 가지 큰 의미를 지닌다.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의 획기적 실험이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극장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연극의 관습적 틀을 벗어났다. 관객과 배우의 정서적 유대만 형성된다면 연극은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본질적 명제를 확인시켜 주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정말 값진 성과를 이룩했다. 자본의 개입으로 이웃과 담을 쌓은 채 살아가는 후기 자본주의 속의 우리들에게 과거의 옛 정취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잠시나마 잊고 있었던 감정을 되살려 주었다는 점이다. 즉, 30분간의 연극적 체험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를 깨닫게 했다는 점이다.

극단 동녘의 연출가인 오치운과 심문섭은 한동안 부산을 떠나 서울 지역에서 활동했다. 부산지역 연극계로서는 훌륭한 인재를 잃은 셈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그들은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 연출가 양지웅과 의기투합해 일련의 실험적인 연극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가장 도드라진 점은 기존의 연극적 관습의 틀을 벗어나는 공연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 '비온드 가라지'에서 공연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와 현재 중앙동에서 진행 중인 관객참여 형 연극인 『우리 엄마 정숙이 치여사』는 바로 그러한 연극 작업이다. 이번에 선보인 『모던 타임스』 역시 그러한 실험적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의 퍼포먼스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관객들을 어떻게 연극 현장 속에 참여시킬 수 있는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시범적 작업이다. 객석의 어둠 속에서 수동적으로 무대를 바라보는 방관자적 태도에서, 연극 속으로 깊이 관여해 극적환상을 체화할 수 있다는 것은 관객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적극적인 경험이 늘어날수록 관객들의 연극에 대한 취향은 점점 더 깊어질 것이다. 이번 퍼포먼스가 캐치 플레이즈로 내건 '예술은 공유다'는 관객과의 친화를 의미한다.

예술이 예술가의 전유물로서만 존재한다면 그 예술은 생명력이 오래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획기적 모험으로써의 실험적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의 퍼포먼스는 관객을 연극의 자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들의 작업에 기대를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와인에 재즈가 빠졌다고?

글 | 김상화 · 썸수다들과 함께 '노는사람' 공동대표 / 썸수다 진행자

어둠한 조명 속에 한 남자가 흔들거린다. 흔들거리던 남자의 손가락 사이에 걸린 담배는 파랗게 연기가 되어 오르면 게슴츠레한 눈빛의 흑진주 빛 여성이 붉은 드레스를 입고 매혹적인 목소리로 감아 돈다. 맥주를 병째 한 모금 넘긴 남자는 결의 이성에게 아릿한 눈빛을 던진다. 영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흔히 보아 온 '재즈(JAZZ)'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이렇듯 파릇하고 아릿했다.

## 10년 전, 재즈 공연 그 속으로

딱 10년 전, 가톨릭센터 소극장에서 매일 다양한 공연들을 연다고 했다. 연극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퍼포먼스도 한다는 그 아심차고 엉뚱한 짓거리가 궁금하여 몇 차례 가 보았다. [재즈 와인에 빠지다]라는 이름으로 별난 공연도 했었다. 공연장 로비에서 와인을 마시고 공연을 본다는 말도 안 되는 조합의 공연이라 재즈 매니아도 아니었지만 어찌하나 싶어 가끔 보던 그 공연이 이렇게 10년이나 이어질 것이라고, 100회 넘겨 계속 해낼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었다. 더구나 어떤 때는 공연장도 떠도는 사정이다 '무대 공감'의 형편과 처지는 [재즈 와인에 빠지다]의 속을 잘 모르는 내가 보기엔 위태로운 지점도 더러 넘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100회 공연이 열린다고 했다. 모든 약속을 뒤로하고 그날을 잊지 않으려 스마트폰 일정에다 알람까지 설정하며 기록해 두었다. 나는 매주 '썸수다'를 8년 동안 해 오면서 꾸준히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큰 자산이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지속해서 해 가는 일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터였기에



2년이나 더 긴 10년 세월을 그것도 매달 공연을 만들어 올린다는 그 지독함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축하하기 위해 100회는 꼭 가봐야 하는 곳이었다. 10년 전 첫 무대를 만들었던 그곳보다 크고 나은 시설의 공연장에서 100회를 기념하는 떡이 나눠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찌거니 와서 와인 잔을 부딪치며 공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모 손을 잡고 온 어린이들부터 등산복을 입은 중년층, 눈빛만으로도 사랑을 나누는 20대 연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제 각각 자신들만의 긴장으로 공연 전 기운을 나누는 모습은 다른 공연장에서는 만날 수 없는 풍경이었다. 양중맛은 카나페를 씹 없이 내다주고 과일이며 여러 주전부리들을 곁들인 달작한 와인 한 잔은 오늘 공연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이며, 어찌면 공연이 자기 취향과 조금 다르다 해도 음악에 취할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두근거림이 넘치는 풍경이다.

## 재즈 와인에 빠지다, 공연 구성

[재즈 와인에 빠지다]는 매번 출연자가 바뀌는데 오늘 100회 공연의 주인공은 '남경윤 트리오'와 보컬 '혜원'이었다. '남경윤 트리오'는 [재즈 와인에 빠지다]의 단골 연주자로 빼어난 연주와 감성적인 선곡으로 늘 만족스러운 시간을 만들어주는 팀이고, 보컬 '혜원'은 재즈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원터플레이의 보컬로, 우리에겐 TV CF 음악으로 익숙한 HAPPY BUBBLE 이란 곡으로 많은 팬을 가지고 있다. 연주자에 대한 기대와 와인 몇 잔으로 오르는 흥분을 진정시키며 정해 진 자리로 가 앉았다. 무대 앞쪽 오른쪽, 때마침 드러머 '서미현'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자리다. 일찍 들어 온 것도 아닌 듯싶은데 아직 객석은 많이 비어 있다. 객석에 불이 꺼질 즈음 뒤를 돌아 봤더니 어느새 공연장은 관객들로 꽉 찼다. 오~ 텅 비었음 어찌나 했던 걱정이 무색한 모습이다.





오랜만에 찾은 [재즈 와인에 빠지다] 공연은 귀에 익은 시그널 음악으로 시작되었다. 10년 전 가톨릭센터 첫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으로 만났던 재즈보컬 '윤정'이 낮고 무거우나 경쾌함을 실은 목소리로 문을 열었다. 부산 특유의 무거운 객석 분위기를 단박에 부드럽게 만들어내는 진행자 '윤정'은 연주자들과 가벼운 토크로 편안한 객석을 만들어 준다.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박수를 쳐야 했다. 100회니까... 간결한 무대는 오로지 재즈만을 보도록 하고, 영상연출은 피아노와 드럼, 베이스가 빛나는 하모니와 교감하도록 스며있다. "재즈"는 어둡고 멜랑콜리할 것이라 선입견이 있던 마음들은 여기저기서 부서지고 무너진다. 입장 전 마신 와인 한 잔으로 풀어진 몸은 가슴에 와 닿는 피아노 음으로 말랑해지고, 바닥을 치고 오르는 베이스의 무거운 울림과 드럼의 잘고 세밀한 리듬은 온 몸을 간질 듯 파고든다. 그리고 끈여리한 보컬이 나와 그 몸에서 어찌 저리 나오는가 싶은 깊고 짙은 목소리에 실린 묘한 감정들은 귀에서 가슴으로 차고 들어와 온 몸이 재즈에 깊이깊이 잠기게 한다.

개인적인 인연들로, 그 인연들의 특별함으로 보았던 공연들과 달리 연주 내내 몸은 절로 흔들거렸고 박수는 리듬을 타며 고개를 절로 끄덕거리게 한다. 어느 듯 나는 매우 익숙한 듯 [재즈 와인에 빠지다] 무대에 빠졌다. 어느 영화의 한 장면에서, 잘 보지도 않는 드라마 한 장면에서, 카페에서 대화하는 그 틈에 흘러지나갔을 그 노래들을 한 소절 한 소절 온 몸으로 들으며, 일상에서 일탈하는 쾌감을 느낀다. 곡이 끝 날 때 마다 큰 박수로 연주자들에게 보답을 하곤 했지만, When I fall in love, Close to you처럼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옛 곡들이 연주될 때는 나도 모르게 더 큰 박수를 보내고 리듬에 내 몸을 더욱 크게 흔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느낌은 음악에, 특히 재즈에 얽은 지식뿐인 나만이 느끼는 느낌이 아닐 것이다. 이미 객석은 연주자들의 열정적인 연주에 빠져 기운이 넘치고 있음을 화답하는 모습에서 확인하고도 남았다.

### 100회 공연을 이끈 힘

공연 중간, 그리고 공연 후 다시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살펴 본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로비를 채운 10대부터 6,70대까지의 4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열띤 기운과 주고받는 눈빛과 부딪히는 와인 잔의 흥겨움은 더욱 [재즈 와인에 빠지다]를 풍성하게 하는 듯하다. 이 모든 분위기를 끌어내고 만드는 것은 어떤 극적인 연출 장치나, 화려한 조명 디자인과 무대 장치 없이도 10년을 이어 온 '무대 공감'의 끝없는 애정의 힘이였다. 쉽고, 100번의 공연으로 관객들과 매달 한 번씩 만나며 정을 이어 온 [재즈 와인에 빠지다]만의 매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럴 것이다. 오늘 연주자보다 더 나은 연주자들도 있을 것이다. 목청이 더 나은 가수도 있을 것이다. 진행도 더 맛깔나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 잘하고 못하고는 오늘 이 시간엔 아무 의미도 없다. 오롯이 오늘 이 현장 [재즈 와인에 빠지다] 100번째에서 느낀 그 느낌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예전에 [재즈 와인에 빠지다] 공연을 함께 보았던 친구는 와인을 한 가지만 주는 것은 공연 제목과 어울리지 않으니 적어도 서너 가지는 시음하도록 해 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했었다. 플라스틱 잔에 와인을 마시게 하는 것을 불편해 하거나 품위가 없다하는 이도 있었다. 또 와인 몇 잔에 취해 공연 중에 깊이 잠드는 친구도 있었다. 어디 그 취향들을 다 맞추어 내겠는가? 어디 거대하고 유명세를 떨치는 연주자들의 공연에 비하겠는가? 하지만, 한번하고 마는 공연이 아닌 한 달에 한 번씩 계절에 맞게, 그때마다 다양한 연주자들의 무대를 만들고 늘 환한 웃음으로 관객들을 일일이 맞아주는 [재즈 와인에 빠지다] 그 무대를 꾸려내는 '무대 공감'의 미려스런 꾸준함과 열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아직도 문화 불모지라 자조하는 부산에서 10년 동안 쉬지 않고 이어온 [재즈 와인에 빠지다]라는 공연 브랜드가 있다고 자랑스레 말해줄 수 있게 되었다.

재즈에는 흑인들의 지난한 삶의 흔적이 담긴 한과 흥이 동시에 담겨있다. 그것은 우리 소리의 한과 흥과 다른 듯 같은 듯 묘한 공통점이 있다. [재즈 와인에 빠지다]는 그 한과 흥을 적절히 잘 섞어 무대 위에 올려 내고, 뮤지션들과 관객들이 서로 깊은 감정을 나눌 수 있도록 무대를 넘어 선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 앞으로 20년, 30년 지치지 않고, 꾸준히 때마다 조금씩 달라해가며 연주자들과 부산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연 브랜드가 되길 마음 다해 응원하는 걸음은 여운을 담백 담고 있었다.



# 꽃과 공룡, 문화다양성주간 개막행사 현장 스케치

글 | 김유리 · 소설가, 드라마 · 시나리오 작가, 칼럼니스트



유리벽 소통 퍼포먼스

아크릴 벽 안쪽으로 바람이 불지 않았다. 웹툰리스트 배민기 작가와 나는 2m×2.4m 크기의 아크릴 박스 안에 수감되어 있었다. 처음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문화다양성주간 개막행사에서 다양하고(어쩌면 희한한) 퍼포먼스를 제공한다는 건 참으로 '힙' 한 일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평소 너무나 힙하지 않은 나머지 간절히 힙하고 싶었던 배민기 작가와 나는 '소통'을 퍼포먼스 주제로 잡는데 동의했다.

문화다양성 축제, 얼마나 다양한 팀들이 나올 것인가. 여간 튀지 않고 서는 송정 바다에 우끼 떠내려가듯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쿼어 축제 품으로 조금 험벗고 춤을 출까 했던 초기 아이디어는 유치장에서 튜브 고무장을 영치품으로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미래적 현안을 자각하며 소멸되었고, 나는 결국 커다란 투명 아크릴 박스 안에서의 퍼포먼스를 제안했다. 높이 2미터, 두 사람이 들어갈 만한 아크릴 박스를 만들고, 나는 투명 벽에다 글을 쓰고 배민기 작가는 띄울 써는 대신 그림을 그리기로 한 것이다.



개막식 런웨이프로젝트

아크릴 공장마다 전화해서 박스를 만들어 달라고 설득하는 과정은 녹록치 않았다. 생판 남인 공장장님들에게 '이러저러한 것을 만들려 합니다'라며 시작한 전화 통화는 대부분 '하하하 내사 무슨 소린지 모르겠소'라는 대답과 함께 결렬되었고, 리스트의 마지막 공장장님이 다행히 이 희한한 발주를 받아들여줬다. 그리고 거대한 아크릴 박스 하나가 축제 현장에 배달되었다. 축제 당일이 아닌 축제 전날에. 축제를 맡은 플래미 대표님은 혹시 재활용품 수거하시는 분들이 렉키 깃 하실까봐 가족들까지 동원해 밤새 아크릴박스를 지켜야 했다. 수업 있다고 거짓말하고 도우러 나가지 않은 내 자신이 다소 미웠지만, 대표님은 작가의 존엄을 지켜주셨다. 작가 노릇이란 얼마나 편한가. 문화 기획이란 얼마나 편하지 않은가.

축제 당일, 널널하게 광복동 86길에 도착한 나는 생각보다 큰 규모에 입이 떡 벌어졌다. 이제까지 참가한 부산 축제 중에 손꼽힐 정도로 큰 규모였다.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라는 자각과 함께 우리 퍼포먼스가 딱히 돋보이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다. 여러 장애인 자활센터부터 시작해, 한국여성타로문화 연구원, 부산여성성의 전화, 청소년 인권행동 이수나로, 우주 고양이 로리타마녀(정체가 무엇인가), 부산 페미광선, QIP, 토마토가, 경성대 인도네시아 전통춤 협회, 부산 사할린 영주 귀국자회, 푸른 하늘의 몽골, 의령 소망의 집, 팝핀 바이러스, 봄봄 챔버 오케스트라, 상상편집소 피플, 소모소모, 언라이크룩, 아시아공동체 학교, 포피스, 거창귀농 예술인 사이에...우리가 있었다. 김유리×배민기. 김유리×배민기. 김유리×배민기.....



우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 팀의 퍼포먼스 주제는, 주제만은 거창했다. 우리는 아크릴 상자 안에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시민들은 상자 밖에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소통을 목적으로 한 퍼포먼스는 문화다양성 축제라는 타이틀과도 결합하고, 시민들의 호응을 잘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상자를 둘러싸곤 퍼포먼스에 함께 해 주셨다. 설치 초반에 웬 10대 소녀들이 우루루 몰려와 누군가의 생일 축하 메시지로 도배를 해주신 덕에, '뒤편 뒤편'하며 덩달아 모여주신 시민들이 합세했다. 소녀들이 쓴 것은 엑소 멤버의 생일 축하 메시지였지만 엑소 멤버가 몇 명인지도 몰랐던 우리에게 생일을 알려주셨으니 첫 번째 소통에는 성공한 셈이다.

축제에 함께 참가한 단체들도 저마다 메시지를 적어주었다. '부산 QIP여기 있다' '청소년 인권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와서 각기 다른 언어로 인사를 적어 주었다. 광복동에 중국에서 관광 오신분만 있는 줄 알았던 내가 다문화 사회가 된 부산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영어 불어 중국어를 비롯해 태국어, 일본어, 인도어까지 (멀리 오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썼는지 글자로 되물어 보았고, 대부분 그 말은 'HELLO'라는 의미였다. 안녕하세요. 나 역시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다. 반갑습니다. 반갑다는 말은 그네들의 말로 어떤 형태일까. 아크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서로 안부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쩌면 이 다양성 축제에 참가한 모든 팀들이 그런 인사를 다 함께 소리쳐 건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요.

'청소년 인권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부산'이라는 이름을 단 이 많은 팀들은 이전부터 있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다양하다'라는 말이 '소수'라는 말과 등가 되는 오해에서 이들은 얼마나 별난 사람 취급을 받아 왔을까. 적은 수로 제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은 부산에서 용감하게 자신을 드러낸 팀들의 열기는 축제 내내 뜨겁게 지속되었다. 마침내 런웨이가 시작되었을 때, 나는 배민기 작가를 상자 안에 홀로 남겨두고 탈출을 감행했다. 참가 팀들이 당당하게 런웨이를 하는 광경을 꼭 보고 싶었다. 바람이 통하지 않는 박스 안에서 땀에 흠뻑 젖은 채 누나 어디가세요를 외치는 배민기 작가를 버리고 나는 런웨이 무대 곁에 뻣뻣하게 들어찬 시민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역사속의 여성 예술가들 코스프레를 하고 나온 페미광선, 시각장애인이 지체 장애인의 휠체어를 밀고 걸었던 장애인 자활센터, '이렇게 입으면 남자들이 안 좋아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 북북 찢어버리고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라는 글귀를 당당하게 흘날리던 로리타 양복을 입은 아가씨들, 우주고양이 로리타 마녀. 모든 차별의 언어가 런웨이 위에서 부서져 공중에 흩날리고 있었다. 마침내 QIP(성소수자인권연대)가 신나게 춤을 추며 무대 위로 뛰어올라 올 때, 나는 그들이 웃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다양한 사회, 소수라서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향해 우리 여기 있노라고 선언하고 있었다.

자, 그럼 다시 아크릴 박스 안으로 들어가 볼까. 나는 웬지 명랑해져서, 꺾통 같은 퍼포먼스 박스 안으로 되돌아갔다. 꼬꼬마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와서 한참 공룡과 꽃을 그리고 있는 중이었다. 공룡과 꽃이라니, 마치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차별의 벽 앞으로 꽃다발을 들고 진격하는 이들 같지 않은가. 배민기 작가는 단색으로 그려진 아이의 그림에 안쪽에서 색깔을 칠해 넣었다. 나는 그 곁에 글자를 그려 넣었다. '꽃을 든 공룡이 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 부산문화재단

## 재단은 지금

### 01 | 감만창의문화촌, 오픈스튜디오 <니-멋대로> 개최

2017. 5. 26 (금) 감만창의문화촌



지난 5월 26일에 감만창의문화촌에서는 2017 감만창의문화촌 오픈스튜디오 <니 멋-대로>가 개최되었다. 입주예술가 14인의 사진전을 비롯하여 시민 참여형 퍼포먼스, 작가 스튜디오 공개 및 체험이 진행되었다. 어린시절 금기된 모든 행동을 재미있게 각색하여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사고쳐방'과 한국조형예술고 학생들과 진행하는 '자유드로잉존'까지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감만창의문화촌 건물을 무대 삼아 진행된 행사는 학교의 입학식과 졸업식을 과정으로 퍼포먼스로 선보이며 함께 참여한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였다.

### 02 | 국제예술교류 네트워크 및 컨설팅 개최

2017. 6. 8 (목) 감만창의문화촌 배움방



해외 교류가 활발한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국제 예술교류 네트워크 및 컨설팅>이 지난 6월 8일에 감만창의문화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부산 지역 중심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기획되었다. △극단 맥 이정남 대표 △그룹프로덕션 김형준 대표 △신은주무용단 신은주 대표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류성호 이사 등 총 4명으로 이들은 예술인·기획자로서 해외 진출 성과를 낸 바 있고, 해외 예술인·기획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전문가 발표는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등 대표적인 국제 행사 참가를 위한 실무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 03 | 2017 문화예술행정 아카데미 개최

2017. 6. 7 ~ 9 남구, 동래구, 기장군 일대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난 6월 7일(수)부터 9일(금)까지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과 역사에 대한 소양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2017년 문화예술행정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부산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사례를 비교해보고, 동래구, 기장군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강의와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문화예술과 행정이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부산지역 문화예술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 봄으로써, 담당 책임자들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갖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자 설문 조사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 : 89%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업무 도움 만족도 : 93%

### 04 |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예술인을 잡(JOB)이라> 개최

2017. 6. 24 (토) 서면 놀이마루 운동장



지난 6월 24일 서면 놀이마루에서는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예술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예술인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예술인에게는 본업과 병행하여 경제적 안정의 기회를, 참여 기업에게는 예술활동의 결과물을 통해 조직의 역량과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업 부스에서는 신청 예술인들과의 사전 면담과 매칭을 통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조직문화개선 △교육훈련 △복리후생 △제품기획 △홍보마케팅 △사회공헌활동 등 파견사업 유형별 활동을 추진한다.



# 부산문화재단 재단은 지금

## 05 부·울·경 지역문화재단, 협력 네트워크의 새로운 공존

2017. 7. 7 (금) 감만창의문화촌 감만사랑방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발맞춰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지방분권화를 실현하고 지역문화재단의 동반성장을 위한 부·울·경 지역문화재단 협력 네트워크 협약 및 포럼을 개최하였다. 부산, 울산, 경남 광역문화재단 3곳과 거제시, 금정, 김해, 밀양, 창원 기초문화재단 5곳, 총 8개 문화재단이 협약에 참여하였다. 협력 방안 수립, 문화예술사업 관련 정보 공유, 기타 공익사업의 공동 추진체계 구축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전 국무총리이자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정운찬 이사장이 부·울·경 지역 연대, 협력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각 기관의 현황, 협력방안을 발표하였다.

## 06 2016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최우수 <가> 등급 획득



부산문화재단은 '2016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에서 최우수 <가>등급을 획득하였다. 2016년도 지역 대표문화 브랜드 창출, 지역문화예술 거점 육성, 지역 문화공동체 만들기, 특히 창작활성화, 교류활성화 및 지역특성화로 구분된 개별사업의 모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으로도 재단은 공정한 심의 시스템, 지역 예술인들과의 협업, 예술활동 지원서비스 강화하여, 부산 예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 부산문화재단 주요 일정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 행사

- 쓰시마 행사 / 8. 5 ~ 6 / 일본 쓰시마 일원
- 시모노세키 행사 / 8. 19. ~ 20 / 일본 시모노세키 일원



피란수도  
세계유산 시민아카데미

- 토크콘서트 / 8. 16 / 부산 KBS
- 사진전시회 / 8. 18 ~ 9. 28 / 부산시민공원



공연예술

- 공연장상주단체 페스티벌 / 8. 15 ~ 22 / 동래문화회관, 부산예술회관, 부산민주공원, 국립해양박물관
- 토요일 전통민속 놀이마당 / 8. 26 ~ 10. 28 (매주 토요일) / 용두산공원
- 우리가락 우리마당 / 9 ~ 11월 (매주 일요일) / 부산시민공원 미로전시실



문화공간

- 홍티아트센터 오픈스튜디오 / 9. 1 ~ 2 / 홍티아트센터
- 감만아트페스티벌 / 9. 23 / 감만창의문화촌
- F1963 해외초청 교류전시 <Listen to Transparency> / 9월 / F1963
- 사상인디스테이션 기획전시 <슈퍼 판타지> 개최 / 7. 28 ~ 8. 20 / 사상인디스테이션



생활문화

- 사상구 생활문화예술제 / 8. 20 / 사상명품가로공원
- 연제구 생활문화예술제 / 9. 23 ~ 24 / 온천천



청년문화

- 거리예술 아트마켓 AREA051 / 8. 19 / 서면 동천로
- 청년문화 네트워크 포럼 6회차 / 8. 9 / 사상인디스테이션



인문학

- 가을독서문화축제 / 9. 2 ~ 3 / 놀이마루





2017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다원예술분야 선정단체 프로그램 안내**

<2017 부산아트북페어-프롬더메이커즈> 2회

**부산독립출판연구소**  
 내용 독립출판 전시 및 마켓, 토크콘서트 개최  
 일시 2017. 7. 13. (목) ~ 7. 16. (일)  
 전시 7. 13. (목) ~ 16. (일) 12:00~18:00  
 마켓 7. 15. (토) ~ 16. (일) 12:00~19:00  
 장소 해운대구 센텀아트스홀

2017 ECO ART TRIP -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프로젝트GR**  
 내용 참여형 에코 프로젝트  
 일시 2017. 8. 19. (토) 19:00~21:00  
 장소 북구 대천천 (화명교 부근)

2017 달리자.. 빛을 향하여 "자전거 타는 할아버지"

**판댄스씨어터**  
 내용 금정구 남산동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  
 일시 2017. 9. 7. (목)  
 장소 금정구 팔송로 36 앞 공원

지역협력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감지덕지도(感智德地圖) 동래**

지역협력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감지덕지도(感智德地圖) 동래>는 재단과 동래구 지역의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단체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에서 추진하고 있다. 동래구 희망정류소 (수안 인정시장 희망통닭 지하 공간)에서 예술적 감각교육 '감지' + 동래의 전통을 기억하는 예술교육 '덕지'라는 내용으로 지역 내 고유문화를 발굴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문화공동체 형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오, 나의 동래! : 다큐에세이 제작 실습  
 드로잉 산책 : 생활드로잉 산책  
 함께하는 포토에세이



**수영아류 탈바꿈 - 별 탈없이 산다**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내용 수영아류 탈바꿈 만화책 출간기념회 & 달밤에 수영아류  
 일시 2017. 9. 30. (토) 20:00 (예정)  
 장소 수영구 수영사적공원 및 수영동 일대

**스트리밍 시티**  
**진흥스튜디오**  
 내용 이동형 미디어 퍼포먼스 <스트리밍시티>  
 일시 2017. 9. (예정)  
 장소 금정구 온천천 부산대 부근

**부산국제비디오아트페스티벌**  
**부산국제비디오아트페스티벌**  
 일시 2017. 10. 13. (금) ~ 29. (일)  
 장소 수영구 수미로50번가길 3 공간 힘

**골목의 기억 도시의 상상 '영주동'**  
**초량 1925**  
 내용 부산 원도심 관련 투어, 퍼포먼스 등  
 일시 2017. 10. (예정)  
 장소 동구 영주동 일대

**총체연행 불날,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의**  
**창작탈춤패 지기금지**  
 내용 위안부 관련 소리극 행사  
 일시 2017. 11. (예정)  
 장소 중구 민주공원 소극장

**부산문화재단 의료협약기관 안내**

포항시  
 + 좋은선린병원  
 + 좋은선린요양병원

울산광역시  
 + 좋은삼정병원

**예술인 패스**  
 artpass.kwf.kr

**ART PAS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tists Welfare Foundation Korea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부산문화재단. 지역예술인 의료혜택 지원에 나선다**

예술인 패스카드를 발급받은 부산지역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일반비용보다 평균 10~20% 감면된 가격으로!

문의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051-745-7236, 7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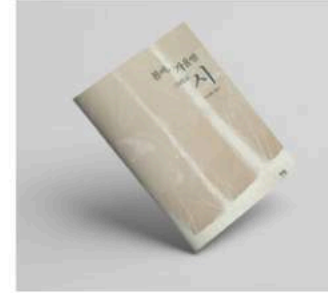
# 2017년도 지역 출판문화 활성화 지원 선정 도서

\* 부산 지역출판 우수도서는 지역 소재 출판사의 우수도서를 선정 구매하여, 지역내 작은 도서관(약 80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01

도서명 도시, 미를 입하다  
출판사 호밀밭  
저 자 티엘엔지니어링 · 티엘갤러리 엮음  
도시를 예술적 측면으로 바라본 22개의 의견. 공공미술과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대한 다양한 물음과 시선을 제시한 책.



## 05

도서명 봄비, 겨울밤 그리고 시  
출판사 전망  
저 자 오정환  
90여 편의 시에 오정환 시인만의 해설을 담은 책. 오정환 시인이 부산일보 '맛있는 시'와 국제신문 '아침의 시'에 소개하였던 시인들의 시와 그 해설을 담음.

## 02

도서명 장희창의 고전 다시 읽기  
출판사 호밀밭  
저 자 장희창  
동서양 대표 고전 38편 소개. 대가의 정신과 문체가 온전히 담겨 있는 '고전'이 현대인의 삶에 울림을 줄 수 있도록 기록된 산문.



## 06

도서명 인문학으로 읽는 자연, 생명, 인간  
출판사 신생  
저 자 조용현  
인문학적 관점으로 자연과 생명, 그리고 인간을 바라본 책.



## 03

도서명 푸른책 푸른꿈  
출판사 해성  
저 자 김요아킴 외 12명  
청소년 도서 141권에 대한 서평 모음집. 현직 교사와 작가가 작성한 서평을 인문학과 공동체, 과학, 예술 등 4개의 주제로 분류하여 묶음.



## 07

도서명 시간 망명자  
출판사 인디페이퍼  
저 자 김주영  
SF 장르 소설 부산 신생 출판사의 첫 책으로 연쇄살인사건과 시간 이동이라는 SF 소재를 결합한 스릴러물.

## 04

도서명 쓰엉  
출판사 산지니  
저 자 서성란  
장편 소설 베트남 여인 쓰엉이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한국으로 시집오고 난 이후 벌어지는 이야기.



## 08

도서명 마개 없는 것의, 비가 오다  
출판사 소요유  
저 자 이승재  
시집, 소요유 시선집 1호로 이승재 시인이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며 20년간 쓴 시편.





# 공감 그리고 독자 인터뷰

독자 | 송수빈 · 부산문화재단 후원회원



## 부산문화예술은 놀이마당!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 토박이예요. 배우고 가르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좋아해서 항상 '뭐 재미난 일 없나'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구경 다니느라 집에 붙어있을 새가 없네요.

부산문화재단 '공감 그리고'는 어떻게 아셨나요?

집에 초등학교 두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과 공연보고 체험하는 것을 좋아하여 '이번 주는 또 무엇을 하며 놀까?' 하며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기웃거리다가 '공감 그리고' 이름을 처음 발견하였지요. '눈을 맞추다 코너 시민 사진 접수'라는 게시글이었는데, 시민이 찍은 문화예술행사 보내면 책에도 싣고 문화상품권도 준다고 선물에 눈이 멀어 사진을 보내기 시작한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2~3년 된 것 같네요.

기억에 남는 코너나 글이 있었나요?

'공감 그리고'를 처음 만난 계기가 '눈을 맞추다' 코너에 사진을 싣기 위한 사적인 욕망이어서 그런지 저희 애들 사진이 처음 실렸던 호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아이들과 감만창 의문화촌에서 어떤 행사에 참여했을 때 찍었던 사진이었는데 내가 찍은 사진임에도 낯선 책자에서 발견하게 되니 느낌이 새롭고 신선했던 것 같아요.

'공감 그리고'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나요?

매 호에 하나의 공연 혹은 예술인을 선정하여 그것 혹은 그들의 진솔하고 깊은 이야기들을 다루어 주면 좋겠어요. 공연이 '왜 이런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까?'라는 문고 답하는 인터뷰가 아닌 서로 술 한 잔 주거나 받거나 하며 나누는 담소 같은 이야기를 읽고 싶네요.

「공감 그리고」 재밌게 읽고 있나요?

사실 「공감 그리고」가 집으로 배달되어 오면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사진만 쪽 넘겨보고 아는 사람 얼굴이 있거나 나의 경험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 중심으로 읽어요. 그러다 여유가 있을 때 모르는 세계의 이야기나 소식을 살짝 엿보기도 하고요.

「공감 그리고」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에 바라는 점이나 새로운 제안 부탁드립니다.

부산의 많은 문화예술인이 준비하고, 노력하고, 연희를 펼치고 작품 활동을 하는 것들에 비해 부산 시민들의 호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의 문제일 수도, 질의 문제일 수도, 홍보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잘 차린 밥상인데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놀이마당'이란 말을 좋아하는데요. 예술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만 터무니없이 저 위에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문화예술을 즐기며 있어 형식, 격식, 체면, 경계, 권위 같은 것은 싹 다 쓸어버리고 시민이고 예술인이고 할 것 없이 편하게 한바탕 어우러지면 좋겠습니다.



# 부산문화의 모~든 소식 #부산문화재단

팔로우

Yellow ID TALK

좋아요

부산문화

예술로 달리는 365일 문화의 온기로 36.5°C

부산문화재단을 검색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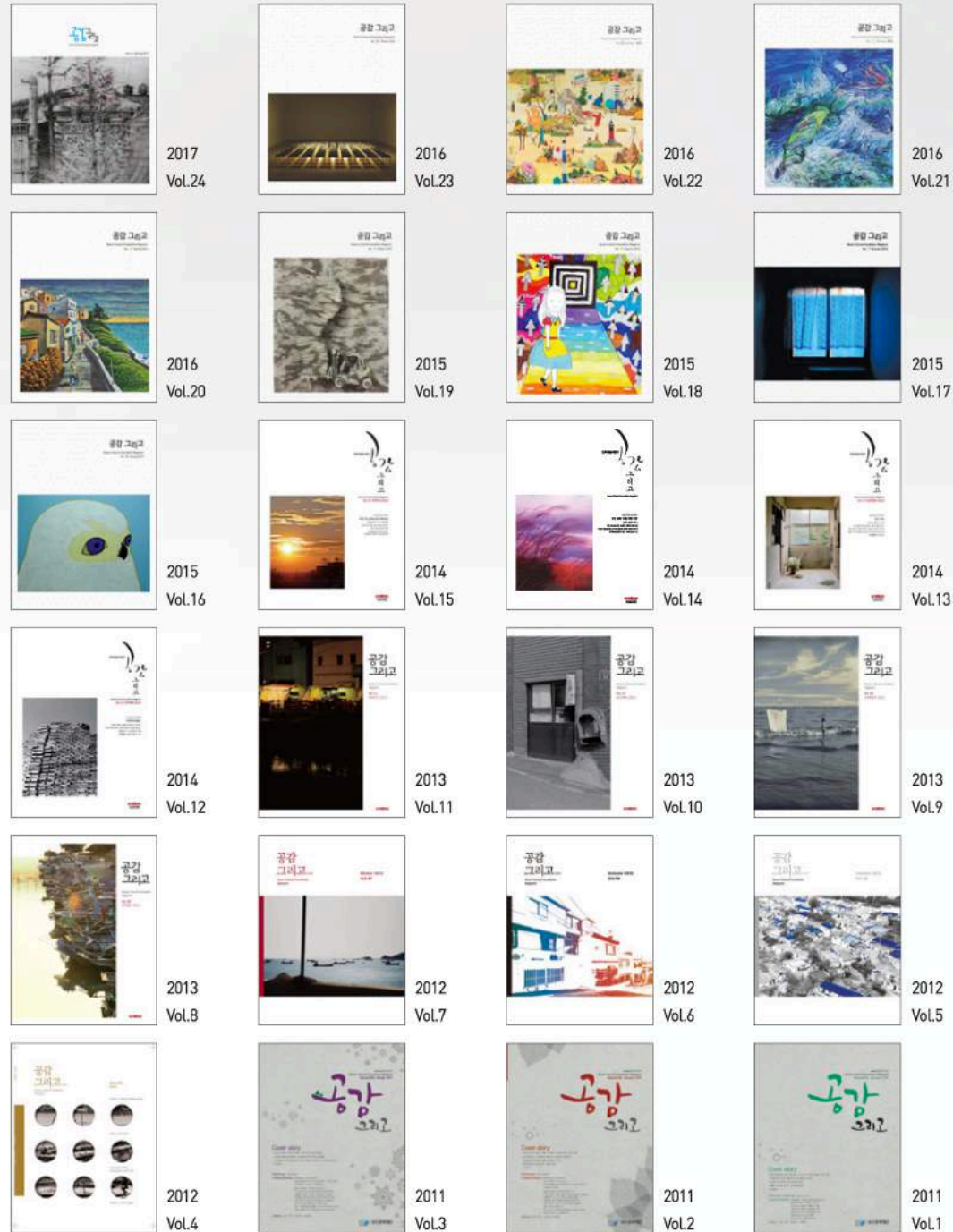
**혜택1**  
언제 어디서든 부산문화재단의 다양한 소식을 받을 수 있다.

**혜택2**  
부산문화재단과 실시간으로 1:1상담 가능하다.



# 지난 공감 그리고

지난 공감 그리고는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배포를 희망하시는 문화공간이나 단체는 부산문화재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745-7223)

감만창의문화촌 / 조선통신사역사관 / CATs 사상인 디스테이션 / 흥티아트센터 / F1963 /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 도시철도 북 하우스(시창역, 중앙역, 연산역, 온천장역, 수정역) / 부산관광안내소(노포동, 부산역, 김해공항) / 부산시립시민도서관 / 부산시 중앙도서관 / 부산국립국악원 / 부산시립미술관 / 부산시민회관 / 부산문화회관 / 을숙도문화회관 / 금정문화회관 / 동래문화회관 / 영도문화예술회관 / 해운대문화회관 /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 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 / 상상공간 아르케 / 모퉁이 극장 / 부산지역 작은도서관 / 추리문학관 / 문화매개공간 쌤 / 영광도서 / 금정공연지원센터

## 부산문화재단 후원회원모집

**여러분을 부산의 문화예술인으로 모십니다.**

부산의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분!  
산소수령 부산문화재단과 함께 하고 싶은 분!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  
화려함보다는 꾸준한 관심으로  
재단과 기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흉나 되어  
단단한 후원을 쌓아가는 당찬이야말로 부산의 문화예술인입니다.

1. 후원혜택
2. 후원회원
3. 후원가입

- 세제 혜택(연말정산 등)
- 재단 기념품 증정
- 재단 발간도서 발송(공감 그리고, 연차보고서 등)
- 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시민평가단 우선순위 배정

- 일반회원 : 매월 1만원 정액 납부
- 연간회원 : 매년 20만~50만 정액 납부
- 평생회원 : 500만원 이상 일사불 납부
- 단체회원 : 단체, 기관, 법인, 기업이 1,000만원 이상을 일사불로 납부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www.bscf.or.kr → 알림마당 → 후원회원 모집 → 후원회원 가입 신청하러 가기
- 문의전화 : 부산문화재단 경영지원팀(051-745-7216)